

천주의 성 요한의 길



- 부 록 -



(재)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목 차

- 부록 1. 디자인호텔 다니엘 캠페넬라, 서울 · 01
- 부록 2. 바쁜 하루 · 05
- 부록 3. 새벽에 일어나 나는 쓰고 또 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 08
- 부록 4. [중년을 말한다] 중년 이제부터 시작이다 · 11
- 부록 5. 나는 누구인가? · 14
- 부록 6.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내 운명,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 16
- 부록 7. 오늘에 좋은 글은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입니다 · 19
- 부록 8. 누군가의 귀감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 · 21
- 부록 9. 나를 아프게 하는 착한 사람들 · 23
- 부록 10. 미선씨의 정신장애 이야기 · 26
- 부록 11. 외계인을 바라보는 정신장애 인식 · 30
- 부록 12. ‘내면 아이’는 몇 살인가요? · 32
- 부록 13.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 34
- 부록 14. 제 3의 성공 · 36
- 부록 15.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라 · 38
- 부록 16. 행복하기 위해 질문하는 방법 · 40
- 부록 17. 윤리와 사고 · 44
- 부록 18. 자선과 기부 대병사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뭘까 · 50
- 부록 19. 노숙인을 위한 자선단체, 위트에서 답을 찾다 · 52
- 부록 20.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실현해야 할 정의 · 55
- 부록 21. ‘회복적 정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 57
- 부록 22. 도쿄는 이렇게 노숙자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 63
- 부록 23. “호스피스 병동, 죽음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 75
- 부록 24.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 80

- 부록 25. 우리 중의 한 사람 - ‘손톱만큼 자라는 사람들 - 지적장애인’ · 83
- 부록 26. 70대 중풍·치매 환자 · 86
- 부록 27. 치매노인과 함께 사는 네델란드 마을 · 88
- 부록 28. “죽으면 내 시신 좀 가져가 주오” · 90
- 부록 29.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다” · 92
- 부록 30. “게임 중독 문제, 본질은 게임이 아니다” · 95
- 부록 31. “그 치명적 유혹에 넘어가서” · 97
- 부록 32. 내 마음의 상처는 몇 근이나 될까? · 101
- 부록 33.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 속 상처가 깊은 이유 · 105
- 부록 34.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 108
- 부록 35. 용서의 기술 · 111

부록 1.

디자인호텔 다니엘 캠파넬라, 서울

친절을 디자인하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감동 서비스 이야기(코마츠다 마사루 지음)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란 무엇인가?

<친절을 디자인하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감동 서비스 이야기>

서비스에 관해 논의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명제 중의 하나가 "고객은 항상 옳다"(The customer is always right)라는 테제이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리츠칼튼호텔 그룹의 창업자인 세자르 리츠라고 전해지는데,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식상하기까지 한, "고객은 왕이다"라는 명제도 있다. 최근 "라면 상무"나 "땅콩 회항"이니 하는 사건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또한 옳으니 그르니 말이 많다.

모든 담론은 그것이 생겨난 역사적, 사회적 컨텍스트와 분리하여 이야기될 수 없다. 세자르 리츠가 그렇게 말했다면, 거기엔 반드시 그럴만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말이다.

1898년 세자르 리츠는 파리 중심가에 베르사이유 궁전을 본따 지은 <호텔 리츠 파리>를 오픈하였다. 그는 이 호텔의 객실에 전화기, 욕조, 수납장 등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였고, 호텔에 왕실의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그가 호텔에 왕실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남다른 서비스로 앞서나가려는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도 있었다. 당시 그의 호텔을 찾는 주요 고객은 실제로 왕족이나 귀족들이었고, 그의 호텔은 특권 계층들이 만나는 사교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객은 항상 옳다"거나 "손님은 왕"이라는 말은 적어도 세자르 리츠에게 있어서는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다. 왕이 방문을 했는데 "고객님, 거기에 주차하시면 안됩니다. 차량을 이동해 주세요"라고 토를 달았다가는... 자칫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일이다.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란 무엇인가?

세자르 리츠는 20세기를 개척한 인물이고, 지금은 21세기이다.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고객은 여전히 항상 옳은가?

고객은 여전히 전지전능에 가까운 존재인가?

이 책 <친절을 디자인하다>는 그런 오래된 물음들에 정면으로 답하는 대신, 고객과의 관계를 기존 논의의 방식과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풀어냄으로써 서비스의 본질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이 책이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커스터머"(customer, 방문객)와 "게스트"(guest, 고객, 초대된 손님)를 구분한 디즈니랜드의 창업자 월트 디즈니의 아래와 같은 발언이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에 온 손님은 커스터머(방문객)가 아닌 게스트(고객, 초대된 손님)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디즈니랜드는 소중한 고객을 가족으로서 초대하는 곳이란 철학을 표방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오는 손님은 단순히 요금을 지불하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오는 사람이 아닌 우리 집에 초대된 소중한 손님으로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접근방식에서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고객은 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서비스관은, 고대사회 이래의 전통적인 '주종관계'(master and servant) 사고방식에 조응하는 관념이다. 왕 또는 주인으로서의 손님이 있고 그 대척점에 그 왕을 모시는 종으로서의 서비스업 종사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비스'(service)라는 낱말의 어원은 라틴어 'servus'(노예)에서 왔다. 주종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반면 이 책은 그런 주종관계가 아닌 '주객관계'(主客關係, host and guest)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주인의 위치에 서는 것은 앞서의 주종관계에서처럼 손님이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주인(host)이 되고, 대척점으로서의 객(客, guest)은 말 그대로 그 주인이 초대하, 또는 그 주인을 찾아오는 손님이다.

그 손님은 나를 보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벗이나 친척 같은 반가운 지인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내가 아주 공을 들여 어렵게 모신 귀한 손님일 수도 있다. '백년손님' 사위일 수도 있다. 아니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추운 겨울 저녁에 잘 곳을 찾아온 낯선 길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된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먼 길을 왔는데 시장하지는 않은지, 밥은 입에 맞는지, 낯선 곳에서의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아랫목은 따듯한지, 두루두루 살피게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손님을 돕고 배려하고자 하는 따듯한 마음이 절로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따듯한 배려의 마음은, 주종 관계적 멘탈리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비스 정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호스피탈리티'/호스피탈리티(hospitality)라고 불러야 더 어울리는 마음가짐이다. "고객에 대한 환대, 후대" 등으로 번역되는 이 '호스피탈리티' 정신이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호스피탈리티의 정신이 작동하는 주객관계는 주종관계처럼 수직적 상하관계, 명령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수평적인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주인과 손님 관계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주인, 호스트에게 있다. 주인은 낮은 곳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빨리 캐치하여 상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늘 신경써야 한다.

호스피탈리티는 "상대를 이해하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말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또한 은근히 고객의 원하는 바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호스피탈리티 산업 근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고객에게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고객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호스피탈리티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 “예의와 정중함”(courtesy),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 등의 정신적 가치와 관계된다, 이러한 멘탈리티는 단기간의 CS 교육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평소의 태도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호스피탈리티는 “업무나 고객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디즈니랜드에 있어 호스피탈리티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기술이나 서비스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일을 할 때나 고객 앞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에도 전철을 탈 때에도 집안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호스피탈리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하나로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적인 따듯함이 솟구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관계는 상호 동등한 인격적 관계이며, 호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요건은 게스트를 돕고 배려하고자 하는 따듯한 마음이다.

"우리는 신사 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다."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 리츠칼튼호텔의 유명한 사훈이다. 고객은 품격을 갖춘 멋진 신사숙녀이며, 그 고객에게 봉사하는 호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품격을 갖춘 멋진 신사숙녀인 것이다. 리츠칼튼의 사훈은, 호스트로서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하인이나 종이 아니라,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을 적극적으로 돕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프로페셔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과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객은 항상 옳다"는 창업주의 입장과는 모순이 될 수도 있는 모토이다.)

부록 2.

바쁜 하루

정하돈 수녀 · 대구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 기도할 시간이 없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다」는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 기도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고 탄식을 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온갖 정력과 시간, 때로는 피나는 인내와 훈련,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가. 예컨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과 정력을 피아노 연습에 할애할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기도 역시 매일 해야만 한다. 계속해서 독서, 대화, 반성을 통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하느님을 만나려면 모든 것을 떠나 사막이나 광야로 가야한다고 말들 한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인간과 세상을 피해 사막이나 광야까지 가야 한다면 과연 몇이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도시 한 가운데서도 사막을 체험할 수 있다. 비록 바쁘게 생활하지만 잠시라도 일손을 멈추고 하느님과 마주 앉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 한 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기도의 자리는 바로 삶 한 가운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이나 강론들은 우리에게 다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다. 기도하려는 자는 실제로 기도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한다.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드디어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마치 우정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또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정이 성장하고 깊어지듯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대화를 나누어야만 친교가 가능하다. 기도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며 하느님께 바치는 시간이다.

- 현대인들은 고독을 싫어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늘상 「바쁘다」고 외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독」을 싫어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혼자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치 비생산적인 사람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보여질까 하는 두려움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사 안에서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은 누구나 외롭고 어두운 시간을 그리고 처절한 고독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안에서 신선한 생명수가 솟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일상에서부터 물러나 고요와 침묵속에 머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의 시간은 창조를 위한 준비기간이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 즉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슬픔, 고독의 불안과 회의를 직시하게 된다. 이 같이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많은 이가 홀로 있음을 피하고자 일과 분주함 속으로 자신을 던지려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하느님과 자기 자신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견디어 내야만 한다.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음은 신앙의 기본이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음은 곧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마음자세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회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숨는다. 그러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 서 있는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서 있음은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그것은 곧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다.

이런 태도는 종종 큰 갈등을 의미하고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까지는 내적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의 교만과 죄를 인식하게 되는 반면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에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도피는 큰 유혹이며 우리 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 포기와 단념, 도망과 중단, 용기를 잃음과 주저함은 도피의 형태들이다.

우리는 기도 중에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현실과 대결하게 된다. 만약에 자기 자신과 현실과의 대결을 피하는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무익하다. 하느님 앞에서 있음, 즉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가져야 할 인간의 올바른 자세와 자아를 깊이 인식하게 된다.

- 생활에서 오는 피로와 분심 때문에 정신집중이 힘들다

사람들은 기도 중에 많은 분심을 한다고 한탄하며 분심 중에 기도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들 한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사탄은 질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쁜 생각들과 걱정을 불러 일으켜 기도를 방해한다. 그러나 놀라지 말고 그것을 정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고대 수도승들과 성인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며 용기를 주고 있다. 분심을 다만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기도 중에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분심들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현대인들은 가능한 한 깊이 생각하고 정신집중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기도하려는 자는 피로와 분심을 견디어 내고 하느님 앞에 꾸준히 「서 있음」과 「머뭄」이 요청된다. 온갖 정신적, 육체적 방해를 무릅쓰고 인내로이 견뎌냄으로서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록 3.

새벽에 일어나 나는 쓰고 또 쓴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새벽 3시, 뜨거운 커피를 앞에 놓고 노트북과 마주 앉았다. 글을 쓰고 강연하는 ‘글로벌생각자’로서 나의 하루는 또 이렇게 시작된다. 2년 전 처음 ‘내 삶의 주인공 되기’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이다.

독자들과 삶의 방식과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은 언제나 버겁다. 격주마다 돌아오는 마감 시간이면 내가 혹시 시시포스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을까 가끔 생각하게 될 정도다. 영원히 무거운 바위를 굴러 올리는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말이다. 이처럼 큰 중압감에 시달리면서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몰입해 독자들과 대화하는 이 시간을 사랑한다.

신문이라는 대중매체에 쓰는 글은 일정한 정보가치가 있어야 하고, 경험을 공유해야겠지만 쓰는 사람이 그 시간을 사랑하지 않고 몰입의 기쁨을 모른다면 절대로 공감은 오지 않는다. 매스(Mass·대중) 미디어이면서도 동시에 딥(Deep·몰입) 미디어로서 이 지면이 가진 특별한 묘미다. 독자들과 감정을 서로 깊게 교류한다는 의미다.

새벽 3시마다 책상에 앉는 이유는 또 있다. 1786년 어느 날 괴테가 홀연히 로마를 향해 아무도 모르게 길을 떠났던 바로 그 결연한 시간이다. 안정된 현실을 뒤로하고 떠난 도전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기 조선의 연암 박지원도 새벽 여명을 뚫고 압록강의 푸른 물 앞에 홀로 섰다. 난생처음 비좁은 한반도를 떠나 거대한 종원의 땅을 밟기 직전이었다.

새벽은 이렇듯 두려움과 설렘이 팽팽히 맞서는 긴장의 시간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 이면서 곧 환한 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돌하는 순간이다. 두 사람에게 삶이란 그 이전까지 알프스산맥과 압록강, 딱 거기까지였다. 단순히 지리적 경계와 공간의 한계가 아닌 인생의 한계였다. 무척 낭만처럼 비치지만 18세기 후반 그들의 여행은 반쯤 목숨을 건 행위였다. 길은 험했으며 인프라도 형편없었다. 가끔 지붕도 없는 곳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 야생동물과 산도적이 출몰하는 때였다.

이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평소에 목청 높여 꿈을 말하던 사람들도 막상 기회가 왔을 때는 온갖 이유를 대가며 포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속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평생의 장대한 꿈을 찾아 길을 떠났다. 괴테는 37살, 연암은 43살 때의 일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지도가 아닌 심장이 이끄는 대로, 마음속의 지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두 사람은 북위 40도에서 함께 글을 쓰고 있었다. 머리가 아닌 심장과 피부로 써내려간 글이었다. 이 여행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더 나가 독일과 조선의 지식 사회에 전례 없던 신선한 문예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연유로 이 여행을 가리켜 참된 의미의 ‘그랜드 투어’, 위대한 여행이라고 말한다.

내가 괴테처럼 오직 그의 책 한 권 들고 알프스산맥을 넘었던 것도 벌써 4년 전이다. 연암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18세기 후반 두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여정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 여행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기회를 잃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치로만 평가했을 때 생각이다. 연봉, 타이틀, 명함 같은 것을 말한다. 많은 것들을 포기한 대신 얻은 것도 많다. 가장 큰 소득은 인생에서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수치 추구에서 가치 추구로 전환했다. 이제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정신없이 남의 뒤만 따라가다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며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바라트 아난드 교수가 남긴 명언이다. 이 말은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까지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경쟁하고 승진의 사다리를 올라가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난다.

조직 생활의 계단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 물론 의미 있다. ‘낭만 독립’이란 허상도 조심해야 한다.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있어야 한다. 그 시점은 과연 언제인가? 모든 선택은 두렵지만, 그 시점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면 그것처럼 무책임한 인생은 없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의미와 존재 의의를 찾아 고민한다. 결국은 내 인생이고 나의 길이다. 지난해 세계현대미술의 혁신을 이끄는 베를린의 미테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me’ 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을 발견했다. me는 나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moving energies’ (움직이는 에너지)의 약자이기도 하다. 이동하는 에너지 혹은

동력 전달자로서 예술의 역할을 말하는 메타포(은유, 상징)였다. me는 다른 길을
마다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는 글로생활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말한다. 번아
웃(탈진)되거나 실의에 빠진 독자들에게 다시금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동력 전달
자 역할이다.

“당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 위의 별을 쳐다보도록 해요!”

최근 세상을 떠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남긴 말이다. 육체적 고난으로 죽음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그는 외롭거나 두렵지 않다고 했다.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
다. 어두운 블랙홀에도 탈출구는 있다고 했다. 바로 그거다. 다시 마음의 알프스산
맥에 도전할 시간이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녹록지 않더라도 두려워 말고, 움츠러
들지 말자. 꿈이 있는 한 세상은 언제나 당신 것일 테니까.

부록 4.

[중년을 말한다] 중년, 이제부터 시작이다.

손장권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0에서 50대에 이르는 중년기는 아름다운 도전의 시기이다. 중년은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의 숨 가쁜 생활을 점검하고, 오늘의 위치에서 자신의 주체와 객체를 성찰하여 만나야 할 여생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제 2의 생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한국사회에서 중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성취와 청춘의 상실이 교차하는 영광과 두려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중년의 한국인들은 젊음과 늙음 사이에 끼여 있는 ‘깁 세대’, 진화와 도태 사이의 ‘중간 세대’, 사회적 역할기능이 불투명한 ‘어정쩡한 세대’, 개혁과 보수의 틈바구니에 서 있는 ‘경계인 세대’이다. 그리고 그들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이다. 과거의 그들은 혁명의 동조세대로 청춘을 불사르고 시대적 사명에 따라 개혁을 주도하는 반란의 세대였다. 오늘의 그들은 아직 꺼지지 않은 정열을 안으로 삭이면서 찬란한 미래의 삶을 꿈꾸는 몽상의 세대이기도 하다.

중년기는 태양의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

한국의 중년세대는 40에서 59세에 이르는 인구 층으로 20년의 터울을 가진 사회의 중추세력이다. 2005년 추계 중년 인구는 1,339만여 명으로 총인구의 27.7%를 차지한다. 2004년에 사회경제적 활동을 한 중년 인구는 975만여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1.7%였다. 2002년 중년인의 잔여 생명은 45세가 29.8세, 55세는 21.7세로 아직 생존의 여분이 1/3이나 남아 있다.

중년인들에게 세상은 아홉 고개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2003년의 통계를 보면 40대의 사망 확률은 1.4%, 50대의 경우 3.1%의 수준을 보인다. 치열한 과거의 삶을 회상할 때 섭섭하기야 하겠지만, 어찌 보면 박수칠 때 떠나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야 할 야망이 있기에 40대에 떠난다는 것은 억울하다.

2004년 통계 결과 40대 사망원인 1순위는 암, 2순위 간질환, 3순위 자살로 나타났고, 50대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간질환의 순위를 보였다. 2005년 유엔 조사에 따르면 2005~2010년간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2세로 추정되며 같은 기간 미국인의 77.9세보다 한국인이 0.3세 더 장수하나 일본인에 비하면 4.6세나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인생의 4계에서 가을에 속하는 중년의 생은 삶의 절정기로, 풍성한 결실과 수확물을 거두며 늙은 부모와 성장하는 애들과 더불어 성공하고 있는 인생을 찬미한다. 배고팠던 어린 시절과 힘들었던 젊은 날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고, 쌓이는 물질에 높아가는 지위는 행복이 내 것인 양 마냥 흡족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지혜는 젊은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유 있는 마음과 물질은 어르신들에게 오만한 자선으로 베풀기도 한다.

그러나 알게 모르는 느껴지는 허전함 또한 감출 수 없다. 병든 어르신들과 자녀들과의 소원한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이별은 약간의 쓸쓸함이다. 그러나 부모와의 사별과 자녀의 떠남은 어떤 측면으로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는 중년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의 과정상 중년의 삶은 태양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잘 조화된 정신과 육체, 안정과 균형을 갖춘 생활의 여유, 그리고 집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자유의식 등은 중년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경륜을 토대로 변화하는 세상의 조류에 맞추어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한다.

중년은 숨겨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억제했던 열정을 발화하여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삶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들은 그동안의 고단한 삶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의 후반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면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중년의 인생에 획득과 성취가 있다면 반대로 상실과 고통이 따르는 혼란과 위기를 겪기도 한다. 중년의 위기는 몸의 증후군으로 엄습된다. 안경과 흰머리, 피부주름, 피로감과 통증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육체와 생리적 증후의 변화를 예시한다. 육체의 이상 증후와 함께 심리정서의 불안은 중년의 삶을 위협한다. 학습과 인지능력의 저하, 깜박이는 기억력, 밀려오는 외로움, 생의 공허함 그리고 만사의 의욕상실은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까지도 위협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인간으로 노년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쉽게 털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돌연히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죽음에의 공포는 중년의 위기를 크게 조장한다.

중년의 혼란과 위기는 대체로 체험하지 못한 허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다. 생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호한 허구적 관념의 탈을 벗으면 중년의 삶은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실상에 근거한 자신감의 회복과 새로운 삶의 기획과 준비, 그리고 과감한 실천은 노후의 삶을 이끌고 아름다운 생의 완성을 기약할 수 있다. 생명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한 인생은 아름답다.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생명이 빛을 받으면 존재는 지속된다. 중년의 인생, 그것은 새로운 도전이며 새로운 인생의 시발점이다.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는 노화와 죽음은 자연스러운 생의 완성이다. 인간의 생애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든 선하고, 과정이 성실하였다면 그 생애는 아름답고 값지다. 우리는 우주만물이 소멸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다. 태양아래 모든 것은 평등하다. 살아 있는 생명이 사라진다는 자연의 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만 순리대로의 삶을 완성해 갈 뿐이다.

중년, 4050의 두터운 황금기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무엇보다 먼저 몸을 만들자. 몸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몸과 마음이 활성화되어야 삶의 의욕을 실천할 수 있다.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은 청춘을 지키는 최상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인지력을 기르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자.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자.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약동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과정과 더불어 사람과의 교제를 넓혀가며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자. 그대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미워할 사람들은 없다. 희생과 양보 그리고 주는 것은 사랑의 전제이다.

중년이어! 이제 모든 것을 사랑하자. 사랑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사랑의 대상과 시간과 장소를 문제 삼지 말자.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을 모두 사랑하자. 그것만이 현재의 나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운용의 원칙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은 실천이다. 운동, 인지력,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작용으로 실천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명체의 이성에 실천이 결여되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일의 삶에서 태양의 빛이 있는 한 생명은 살아있다.

부록 5.

나는 누구인가?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고병국

인문학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인문학 정의를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으로 내린다. 보통은 ‘인간다움’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사람이란 누구인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현들에 대한 연구, 그들의 사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배울 점 등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이라고 본다. 인문학의 첫 질문은 ‘사람은 누구인가?’이다. 그것을 좀 더 좁혀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이다.

어느 덧 살아온 햇수도 적지 않은 나이가 되다보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정리를 한 결과물이 자서전, 자전 등이다. 옛 선비들의 글 중 행장, 묘지명 등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사람됨이라면, 자서전(自敘傳) 자전(自傳) 등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최근 선비들의 그런 글을 모은 책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읽었다. 그들의 자전(自傳)은 글 분량이 많지 않다. 예외도 있다. 대표적인 글이 심노송(1762-1837)의 『자저실기』(自著實紀)이다.

“성격이 편안하고 고요함을 좋아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시끄러운 곳은 몸뚱이를 아예 들여놓지 않고 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거처하는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고, 향리에 거처할 때에는 고장 사람들이 그가 어진지 그렇지 않은지를 몰랐다. 벗과 사귄데 있어서도 벗들이 그와 왕래하지를 않았다. 아아, 이 사람은 그저 병든 사람인가? 그저 바보인가? 몸은 병들어 있을지언정 마음에서는 병으로 여기지 않으며, 바깥으로는 바보이지만 내면은 바보가 아니다. 도화를 두고 서적을 두고서, 그 속에 몸을 꼭 담그어 본성을 기르니, 지각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니, 사업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찬(贊)은 다음과 같다. -중략- 오로지 스스로의 덕을 지킬 줄 알 뿐이고, 남에게 알려지길 구하지 않으니, 세인이 알지 못함이 마땅하도다 ”

위 글은 권익창(1562-1645)의 <호양자자전(湖陽子自傳)>일부이다. 호양자(湖陽子)는 그의 호(號)이며, 그는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학문에 몰두 해 퇴계(退溪)학맥의 전통을 고수한 인물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찬을 쓴 사람도 있다. 그 중 하나가 표암 강세황(1713-1791)이다. 그

의 화상찬(畫像讚)을 보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구나. 머리에는 오사모를 쓰고, 몸에는 하얀 야인의 옷을 입었네. 여기에서 볼 수 있다네. 마음은 산림에 있지만, 이름은 조정에 오른 것을. 가슴에는 많은 서적을 간직하고, 필력은 오악을 뒤흔드네. 세상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나 홀로 즐길 뿐. 늙은이의 나이는 일흔이고 늙은이의 호는 노죽 이라네. 그 화상은 자신이 그린 것이고, 그 화상찬도 자신이 지었다네”. 『나 홀로 즐기는 삶』 인용.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참 ‘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하는 소리도 듣는다. 최근에 청소년전문 사역자가 성추행 사건으로 교계에 구설수에 오른 일을 보면서, 사람은 겉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나’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다분히 외형적이고 어떤 결과물 업적 등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는 ‘나’라는 사람의 진솔한 내면, 인간성, ‘나’의 가식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지도자가 되거나 종교인일수록 많은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음과 바름을 위해 씨름하면서 자신을 다잡아 가야하는 존재가 아닐까? 바울의 고백이 생각난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것을 향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밖에 못되는 인간이 바로 ‘나’인가?”(롬7:24) 고민하는 모습. 이런 고민을 했던 본회퍼(Bonhoeffer 1906-1945)의 시(詩) 일부이다.

“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중략-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림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빗칼과 꽃새소리에 주리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중략-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가을에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어떨까? 글로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자전(自傳)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부록 6.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내 운명,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재)진실의힘 최양준

문요한 : 마이데이란 시간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우리 마음 속의 상처를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 각자 돌아보면 마음 속에 아직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누구나 있기 마련이구요,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거죠. 하다못해 우리의 개인적인 상처도 그럴진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폭력들로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여러 사람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 상처를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양준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텐데요, 선생님이 말할 준비가 되셔서 오늘 오신거지만, 우리는 들을 준비가 돼있어야 해요. 얘기하는 분 따로 있고, 듣는 분 따로 있는 그런 것 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는 따로 없지만 선생님이 얘기 하실 때마다 마음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들 때, 상상 속에서나마 걸어 나오셔서 선생님의 손을 마주 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시거나, 선생님과 어깨를 맞댄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마이데이를 진행하면서 드는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의 질감은 달라진다고 해야 할까, 조금씩 조금씩 날카로웠던 상처들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먼저 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만히 최양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선생님의 고통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마주하는 시간일 거 같구요. 선생님의 그런 것에 공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의 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명하는 자리가 될거구요. 최양준 선생님, 전에 많이 사양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

최양준 : 저도 과거 괴로웠던 것을 내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아시다시피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자라

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상경해가지고 목수일, 인테리어하고 문짝 자르는 일을 쪽 해왔어요. 그런데 사돈되는 분이 일본에 가면 돈벌이가 아주 좋다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도 돌아가시고 해서, 돈벌어 마누라 얻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런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있으면 한자라도 더 배우고, 이랬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라던지 모든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공부도 못해보고 목수일을 하다가 일본을 가게 됐죠. 처음에 일본에 가니까 야, 이거 말이 통하지 않아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 그래서 사장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내 의사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요한 : 그때 누굴 믿고 가셨나요?

최양준 : 친척 사돈 그 분을 믿고 갔죠. 거기서 한 3개월 있다가 한국에 나왔죠.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돈벌이도 그렇게 잘진 않더라구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와서는 일손도 잡히지 않아서 제가 다음 해에 일본을 또 갔죠. 다 아시겠지만, 7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여권을 내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들었어요. 뺄 없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각도 못 할 정도였죠. 그래서 재차 제가 일본을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75년도에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3~4년 정도 낮에 일하고, 저녁이면 열심히 사전 하나 들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 3~4년 정도 지나니까, 가족들이 보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사장한테 한국 나갈란다 하고 이야기 하니까 사장이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해서 모리미스 가스오 라는 일본 사람 여권을 일본 사장이 만들어주길래, 그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 여권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죠. 오사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서 오무라 수용소로 갔죠.

문요한 : 여권법 위반인가요?

최양준 : 예, 여권법 위반이죠. 오무라 수용소에서 3개월인가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오니까 부산 보안대 수사관들이 4명이 딱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내가 여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다보다, 이 생각 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런데 가니까 그냥 뭐 빨간 카페트가 딱 깔려있는데, 겁을 그냥 확 주더라구요. “야, 이노무 새끼야, 너 솔직히 말 안하면, 너 이 빨간 카페트가 무슨 카페트인지 아냐, 너 같은 놈 들어오면 두들겨 패서 피로 물든 자국이다, 이 카페트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겁을 주고 3일 동안 잠을 안재우더라고요. 3일을 잠을 안자고 나니까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 이후부터 진술서 써라 그러지, 고문을 시작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들어온 사람마다 사정 없이 두들겨 패는데 병신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한 25일 동안 반복, 반복, 반

복을 해서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두들겨 맞고 물고문, 고추가루 고문, 이건 뭐 하는 것은 고통이고 그러지만요, 제일로 거기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은요, 벌거벗겨 놓고 그 추운데 발가벗겨 놓고는 전기 고문도 전기고문이지만은, 이 대바늘로다가 손톱 밑 찌르는 거요, 그것은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 20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 죽는게 낫지 사는게 어떻게 살겠냐 말입니다. 제가 3번을 까무라쳤었어요, 그 카페트 위에서. 그때 의무과에서 와가지고 봐주고, 청진기 대고 그러더라구요.

두 놈이 나가면서 “내가 너를 오후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구요. 제가 이러다가는 내 처자식도 한번 못보고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은, 나를 이렇게, 팔을 못썼으니까, 팔을 부축해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는 그 군인이 소홀히 한 것 같더라구요. 근데 뭐 변소 창문이라봐야 높은데 걸려있고, 작은 크기 밖에 안돼죠. 그런데 제가 기왕 죽을 바에는 어린 처자식이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망을 시도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거길 도망을 갔는지, 아마 지금 그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라고 하면 지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을 딱 뛰어 넘었는데, 아 그냥 보안대 담이 말입니다. 그게 높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철조망이 막 뚝뚝뚝 말려 있는 겁니다. 맨손에다 맨발에다 허술한 군복을 입고 거길 내가 뛰어 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딱 뛰어넘었는데 손이고 발이고 뭐 다 찢어져가지고 피는 범벅했고, 딱 뛰어 내리니까는, 창살 같은 걸 막 박아놔더라고요. 창살. 그레가지고 툭 뛰어내리니까는, 지금도 여기가(발바닥을 가리키며) 간질간질하고 지금도 아픈데요, 한 복판에 그 창살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신에 창살을 꼭 잡아뵈죠. 그랬더니 피는 질질 나지... 그래도 기왕 담을 넘었으니까 도망 한번 가보자 하고 가정집, 옛날 재래식 연탄 때고 하는 집, 거기서 도망을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숨었는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가니까 요만한 거울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탄불 아궁이가 두 개가 있었고. 거울을 보니까 25일 동안 수염을 안 깎았지, 이 놈들이 따귀를 얼마나 때렸는지 양 볼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내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 싶어서, 다시 부산 보안대 정문 쪽으로 가니까 나를 잡으러 오더라구요. 가자 그래서 저를 지하실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더라구요...

부록 7.

오늘에 좋은 글은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입니다.

- 좋은글 -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내가 할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 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첫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에는 각인효과(刻印效果)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자나 깨나 "감사 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

밝은 음색(音色)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바뀌라.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런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이다.

통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불평불만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라.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두고 후회한다.

말에는 격 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입니다, 미안합니다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다.

잘못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좋은 책은 소리 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목소리를 낮춰라.
조용한 소리가 오히려 위력이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부록 8.

누군가의 귀감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

군산대 김태경 기자

귀감(龜鑑)이란 본보기가 될 만한 언행이나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즉 사물의 본보기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거북과 거울이 어찌다가 사물의 본보기를 대변하게 되었을까? 특히, ‘거북’을 나타내는 龜(거북 귀)자가 쓰인 이유는 무엇인지 쉬이 알기 어렵다. 거북과 거울이 타의 모범이 된 사연을 다음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옛날에는 길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거북점’이 있었는데, 이는 거북의 등을 말려 불에 굽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북의 등에 여러 갈래의 금이 나타나는데, 이때 생겨난 균열을 ‘조(兆)’라 하여 어떤 일에 나타나는 기미를 징조(徵兆), 길조(吉兆), 흉조(凶兆)라고 하였다. 이처럼 ‘귀감’에 담긴 거북의 뜻은 옛날의 ‘거북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거울은 스스로가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거울이 귀했기 때문에 거울 대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고 한다. 여기서 유래하여 자기 판단의 행위를 가리켜 ‘감’이라고 한다.

이처럼 ‘귀’와 ‘감’은 사람의 길흉이나 미추를 판단하는데 쓰이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귀감’은 길흉을 점치는 ‘귀’와 미추를 판단하는 ‘감’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오늘날 ‘귀감’은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귀감이 되는 인물이 있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이끌어주길 기대하곤 한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인물은 타의 모범이 되고, 행위의 기준으로 삼기에 마땅한 인물일 것이다. 그런 인물로 흔히 일컬어지는 ‘멘토(Mentor)’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로서, ‘귀감’이 되는 인물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귀감’과 ‘멘토’에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한

사람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귀감’ 과 ‘멘토’ 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귀감을 주는 멘토를 찾고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 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귀감을 찾아보자. 내 주위의 크고 작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귀감이 될 만한 이유가 가득하다. 그리고 나의 멘토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다짐에서 새로운 귀감이 시작될 것이다. 귀감을 찾기 위한 오늘의 산책에서 나아가, 귀감이 되기 위한 내일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부록 9.

나를 아프게 하는 착한 사람들

나카지마 요시미치의 『차별 감정의 철학』

오빠가 서른 초반에 병을 얻은 뒤, 엄마는 모임만 다녀오면 눈물지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등 가족 행사에서 다른 친척이 자식 얘기 하는 걸 견디지 못했다. 오빠 또래의 사촌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평범한 얘기는 그런 평범한 삶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자식을 둔 엄마를 소외시켰고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게 했다. 운명의 알궃음일까. 유독 공개적인 자식 사랑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던 한 친척의 생일날, 엄마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외숙모가 말했다. 엄마가 외숙모에게도 하소연을 종종 했다고 한다. 유일한 기댈 곳이었을지도 모른다. 외숙모는 짝 채워 장가까지 보낸 외아들을 사고로 잃는 큰 아픔을 겪었다. 그렇지만 그 후 친지 누구도 당신 앞에서 자식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한 네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나는 엄마의 괴로움에 공감하기보다 엄마의 나약함을 원망했다.

가족 얘기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건 다른 개별적 죽음, 그리고 사회적 비극을 접하면서다. 세월호 유족은 다른 사람하고 술 마시면 감정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유족들끼리 만난다고 했다. 눈치 보지 않고 웃고 싶을 때 웃어도 되고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니까. 가족지상주의 사회에서 가족이 온전치 못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상의 소외는 비슷한 풍경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철학자 나카지마 요시미치는 『차별 감정의 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애정의 표명 중에서 가족애의 표명만이 안전한 특권을 가진다. 어떠한 빈축도 사지 않고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는다. 이는 가족 복이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아니 한발 더 나아가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잔혹한 현실이다.”

얼마 전 2014년 1월 20일 일터에서 동료의 괴롭힘으로 자살한 현장실습생 김동준 군 어머니를 만났다. 근황을 얘기하던 어머니는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싫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조카들을 보면 아이 생각이 나고, 동준 군 외할머니는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운다고 핀잔을 주고, 마음 정리 잘 하라고 형제들은 당부하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안 가면 더 걱정하니까 안 갈 수도 없다고 했다.

친구들 모임은 좀 낯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한창 친구의 아이들이 군대 갈 즈음이라 만나면 군대 보내고 면회 가고 제대한 얘기가 화제다. 같이 기뻐하고 안도하다 문득 울컥한다. “나 눈물 나, 니 아들 잘났어.” 속내를 터놓기도 하지만 답답하다. 분명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한 게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라서 그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이라고 토로했다.

나는 어머니와 페이스북 친구다. 동준 군 또래인 내 아이의 군 입대와 제대 소식을 SNS에 올렸다. 막연히 생각은 했다. 혹시 이 포스팅을 군의문사 유가족이 본다면 마음이 아프겠다고. 그러나 자식을 군에 보내는 두려움조차 누군가에겐 복에 겨운 투정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진 이르지 못했다. 동준 군의 어머니처럼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도 어느 집 청년의 군 입대 소식에 눈물지었을지 모르겠다. 아이는 떠나도 부모의 자식으로선 나이를 계속 먹는다.

동준 군 어머니의 바람은 소박했다. 내 앞에서 ‘아무도 자식 얘기를 하지 마라’는 부탁이 아니라 ‘나도 자식 얘기 하고 싶다’는 간청에 가깝다.

“죽고 없지만 우리 아들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얘길 하면 사람들이 초긴장해요. 옆구리 쿡쿡 찌르거나, 아예 맘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도 어느 정도 풀어야만 감정이 사라지는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니들이 애들 군대 얘기 손자 얘기 할 때 나도 맨날 생각나고 슬퍼. 그래도 나는 웃으면서 니들 얘기 듣고 잘했다고 하는데, 친구라면서 내가 동준이 얘기하면 왜 불편해하냐고요. 살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생로병사도 삶이에요.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만 삶이 아닌데, 그것도 삶이고 그 과정을 이기는 것도 삶인데 왜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못 들어 넘기냐. 그게 서운하죠.”

우리 엄마도 아픈 자식 얘기를 어디서든 후련하게 할 수 있었으면 울화가 풀렸을까. 조금 더 오래 살았을까. 동준 군 어머니 말씀에서 엄마가 감내한 외로움의 크기를 짐작한다. 피붙이인 나도 감정노동을 거부했다. 나 역시 인생 최대의 난국을 보내는 중이어서 같이 무너질까 봐 엄마를 더 피했다. 만약 어느 자리에서든 엄마가 위축되지 않고 괜찮은 척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슬픔을 떠들었다면, 듣는 사람들이 동정이나 입막음이 아닌 토닥이는 눈길로 들어주었다면 적어도 자신의 존재가 통째로 세상에서 삭제되는 ‘시선의 차별’을 겪진 않았을 것 같다.

동준 군 어머니는 자식이 그리울 땐 가끔 기사를 검색해 읽는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를 기억하는 게 슬프지만 그게 세상과 자식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인 것이다. 아이가 허술한 시스템에 의해서 죽었고, 그렇게 자식을 보낸 사람들은 아이를 배려하

지 못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우리 엄마의 친척이, 동준 군 어머니의 친지가 그랬듯이 “악의 없는 농담과 별생각 없는 자랑”에 차별의 싹이 숨어 있다. “사회적으로 낙오자도 사회적 부적격자도 아닌 ‘선량한 시민’인 그들이 차별 감정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악독한 권력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에 의해 생산되는 차별 감정이기에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방법은 이것이 유일하다. 자기 안에 숨은 나태함과 눈속임과 냉혹함과 끊임없이 싸우기.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빠져 있는 한, 나는 ‘옳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사람은 차별 감정과 진지하게 마주할 수 없다.”

어김없이 돌아온 슬픔의 달 4월, 타인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나태와 둔감을 경계하며 세월호에서, 세월호만큼 위태로운 일터에서 침몰당한 아이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슬한 자식 이야기가 오가는 그 쓸쓸한 자리를 건넌을까.

부록 10.

미선씨의 정신장애 이야기

-한국정신장애연대 활동가 박미선-

아파트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폭행 가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안 입주민이 가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물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으로부터 정신장애인 아들의 병원 치료약속과 위반 시 이사 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4개월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정신 장애인을 발견한 이웃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꾸준히 괴롭혔다. 이웃들의 집단 따돌림과 악의적인 소문을 견디지 못한 정신장애인 가족은 결국 아파트를 떠났다.

이 사건은 2009년 화성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단면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 장애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한다. 국가보고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장애인과 관계 맺는 것을 주저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다. 정신장애인은 이유 없이 칼부림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악의 축이 아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이나, 연쇄 살인사건으로 보듯 공격적 행동을 정신장애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정신보건법 제2조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신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 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2012년 8월 17일 열린 공감 월례포럼은 정신 질환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그리고 정신 장애인을 차별하는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탐구했다. 1부는 한국정신장애인연대 (Korea Alliance on Mental Illness) 활동가(약칭 카미)이자 실제 정신장애를 앓는 박미선 씨의 경험담으로, 2부는 아주대학교 정신과 이영문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정신분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미선 씨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신분열 증상인 환각, 망상적 사고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선 씨의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은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미선 씨에게도 차별과 편견은 언제나 그녀의 삶의 무게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미선씨는 같은 병원에서 4번 진단받았지만, 4번 다 다른 병명을 얻고, 수십 년간의 치료, 입원, 심지어 강박까지 대한민국 정신병원을 몸소 겪으며 본인의 소명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가 싸운 것은, 이 사회의 정신장애에 대한 무지와 무식한 폭력이며 열악한 사회제도였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고등학교 때였다고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시설에서 생활한 뒤 고등학교를 강남 8학군으로 진학하게 됐는데, 그때 경험한 주변 사람들의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기는 성적을 받기 위한 경쟁만 할 뿐..., 친구 간 우정이라고는 없고..., 정신장애인으로 저를 외면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버지의 폭행은 이어지고..." 그녀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동안 정신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했던 내적?외적 고통이 적잖았지만, 좋은 환경과 친구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담쟁이같이 서로 의지하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회로 복귀한 지 1년 만에 정신병원에 재입원했다.

미선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 보호감호소도 아니지만, 병원에서는 군대와 같이 미선씨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금지했다. 화장실조차 본인 의지대로 갈 수 없도록 병원은 미선씨의 신체 및 이동의 자유조차 박탈했다.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는 일상이었다. 아무 병이 없는 사람도 타의적으로 감금되었다.

실제로 정신 질환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보호자와 정신과 의사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었다. 또 정신병원의 시설자체가 정작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수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취침하고 약을 먹는 등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재활의 한 과정이다. 정신병원시설에서는 환자들에게 이런 규칙을 지키도록 하며, 환자들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활이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전혀 돕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사회 복귀 후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정신병원을 강제입원이 아닌, 본인 동의 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적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과 병원과 결부하여 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의 시스템이 관리와 통제 중심의 공

급자 중심의 서비스라면, 선진국의 시스템은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병동의 규모를 줄이고 축소하는 탈원화를 거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

미선씨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정신병원 생활도 참담하지만, 가장 무섭고 터무니없는 것은 그녀를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회의 적대적 태도였다. 정신질환자 또한 엄연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일반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동체의 발전은 ‘아픈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신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배제한 채, 무조건 차별하고 거부하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 다수의 일반인이 일시적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걸 감안하면 이런 처사는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철저하게 빈틈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

이영문 교수는 박미선 씨에 이어 정신장애인 차별 현상을 제도적 측면으로 일부 언급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그 사회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이다. 정신건강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현상이 수렴되기 때문에, 차별이 심할수록 사회에서 상호간 관계의 배타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풀고자 차별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는 정신장애를 공급자 편의 중심 체계로 관리했다. 국가는 국가의 비용이 적게 들게 하고자 책임을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체제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를 다루는 병원은 개인병원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양심 있는 병원들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 중 민간시설이 80%나 되는 것만 봐도 정신장애인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즉 사립병원에서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 환자는 곧 돈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정작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보다는, 병원에 이익이 되는 치료를 처방하기 일쑤였다. 국가는 병원 내 인권유린을 방관하고 세금만 집행할 뿐이다. 앞서 말한 본인 동의 없이 강행되는 부당한 입원 절차 제도와 입원 후 인권침해 등은 모두 사립병원의 방만한 경영과 환자의 인권유린을 가속하는 제도적 허점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의료진, 그리고 일반 대중의 노력이 촉구된다. 독일의 경우 나치를 겪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반인의 기본적인 권리도 언젠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녔다는 것을 깨달

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장애인이 일반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독일
일을 리모델링했다. 또한, 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독일 국민
의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했다. 정신장애는 멀리하고 격리해야
하는 몹쓸 병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고, 정신장애인은
외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은 그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정신장애를 의미하는 'mental disorder'는 의사의 진단으로만 판정되지만,
정신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신 질환을 의미하는 'mental illness'는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신 질환자란 정신장애를 겪는 환자
뿐 아니라 모두일 수 있다. 정신질환을 기준으로 normal, abnormal을 구분하는 것
은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무지의 소치이며, 폭
력이다.

이영문 교수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신병의
'public awareness' (대중적 인식)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태까지 정신병
을 감지하는 'detection'(발견)만이 선행되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중의 정신건강 의식도 높일 필요가 있다. 독일의 모델처럼 말이다. 대중이 정신
장애와 정신 질환,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인식 변화가 일어난
다.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과 대화하고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으로의 변화
는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 시설 생활이 고통스럽고 군대처럼
규칙적이어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퇴원 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미선씨는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오는 사
회적 낙인은 이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정신장애인이 되는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억 광년의 은하가 생긴다.

정신장애인이 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보장도, 대접도, 차별과 편견에
대한 고연도 아니다. 단 하루라도, 같은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다.

부록 11.

외계인을 바라보는 정신장애 인식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의 허점 분석 -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나는 외계인이었다. 내가 심한 우울증을 겪을 때 사람들은 나를 외계인 보듯 하였다. 하루 18시간을 자거나 무기력하게 지냈고 가슴에 돌이 박힌 듯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여러 정신과 상담과 다양한 약물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어떤 약은 먹으면 몸이 축 늘어졌고, 일상을 이어가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식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돌출된 행동을 하거나 울적이고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부모도 사춘기라 그러려니 했고, 교사도 친구도 저러다 말겠지 하며 나를 따돌렸다. 내가 유일하게 존재감을 느낀 것은, 내가 죽으려고 욕상에 올라갈 때였다.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그때만이라도 나는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자살로도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힘든 사회가 됐다.

우울증은 정신병이고, 또한 광의적 의미에서 정신장애이다.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는 복구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신장애는 장애와 일시적 질병이라는 명확한 구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반인은 가벼운 우울증을 앓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은 정신장애와 동치된 인식을 한기도 한다. 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에게 비정상적이고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기도 한다.

내가 외계인이었을 때 그들이 보기에 나는 많이 이상하고 확실히 충동적이며, 우울하고, 불순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싸이코였다. 친구도 부모도 도외시한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종교였다. 영혼의 마지막 보루인 종교에 기대어 위로 받고 싶었지만, 나를 감정기복이 많아 귀신들린 정신병자라 다그칠 뿐이었다. 예수님마저도 나를 외계인 보듯 하신 걸까.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기계화된 문명에서 인간도 톱니바퀴처럼 께깹째깹 오와 열을 맞춰 굴러간다. 기계에 빨려 들어간 찰리 채플린처럼 삭막하고 경쟁과 집단주의가 맹종되는 세태에는 개인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란 없다. 그래서 아프다. 아픈 걸 아프다고 하지 못해서 아프고, 아플 힘도 없어 아프다. 누군가 조금 돌출된 행동을 할 때, 적당히(?) 적응하

지 못하는 불순분자를 정신병자로, 외계인으로 낙인찍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당당하게 입증 된다. 나는 저러지 않으니까 정상이지, 나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거야 하는 피아의 이분법적 인식구분은 정작 자신을 피해자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나 강박 증세가 있을 수 있고, 일시적인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강박관념은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정작 치료할 시기를 놓쳐 자신마저 ‘비정상’으로 추락하는 치명적인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은 흡사 매카시즘과 닮았다. 매카시즘은 매카시 상원의원이 미국 의회에서 공산주의 관련 인사를 축출하고자 명부를 작성한데서 유래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신장애를 바라보는 ‘정상적인 인식’도 정상인이 아닌 사람을 비정상인으로 낙인찍는다. 그리고 정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으로 비정상인의 조짐이 보이는 것들은 모두 터부시한다. 그렇다면 남는 의문 한 가지, 순수한 ‘정상인’은 과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일까? 매카시즘이 미국을 강타한 건 미국의 공산화에 대한 공포였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도 실은 공포에서 기인한다.

우리가 정신장애를 비정상적인 것이라 바라보는 그 내면에는 정신장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2차원에 사는 존재는 3차원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3차원을 1차원이라고 아등바등 우긴다. 정신장애인과 직접 접하기도 전에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의 굴레에서 위험하고 불순한 사람이라 단정 짓는다. 정신장애를 겪어보지 못했을 때 혹은 얼핏 들은 왜곡된 정보로 손쉽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도 우울증과 정신분열을 겪었지만 내가 가장 아플 시절 내가 가장 증오하고 미워한 것은 친구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며 나 자신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등 특이한 행동은 해도 위험하지 않았다. 정신장애를 지닌 사람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치료될 수 없는 존재도 아니다. 그들은 적절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정신장애의 일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증오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법은 주변에 대한 관심과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친하고 낯선 것에 서툴다. 하지만 낯선 것과 대면하며 인간은 발전했다. 물론 우리에게 아직은 정신장애인보다 외계인이 더 익숙할 것이다. 나를 외계인처럼 바라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몸을 파는 여성을 질타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며 죄가 없는 자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우리가 외계인으로 여기는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묻는다. 정말 아프지 않은 자, 돌을 던지자.

부록 12.

‘내면 아이’는 몇 살인가요?

조선일보 김형경 소설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내용이 대체로 두 가지다.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의 이야기가 끝나고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엿본다. 상대방의 말꼬리를 꿔고 자기 이야기를 밀어넣기도 한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점잖은 목소리로 이웃과 사회를 걱정한다. 특정인을 화제로 올리고 그를 판단·평가하는 데 열을 올린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 남의 얘기만 하는 사람이 만나면 한 쪽은 상대방을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아로 취급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속내를 내놓지 않는 음흉한 사람이라 여긴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피하고자 특정 분야의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면 잘난 척한다는 오해를 받는다.

젊은이들이 삶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먼저 ‘내면 아이’에 관한 책을 읽어 보라고 권한다. 책을 읽은 이들은 자기 내면에 상처 입은 채 웅크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내면 아이는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당했거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목록에 발목이 잡혀 있거나, 외부 대상의 눈치를 보면서 순응적 태도를 취하거나 한다. 외부에서 오는 보살핌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결핍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가족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느끼며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기도 한다. 성인으로서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 속에 아이 때의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이 이어진다. “내면 아이는 어떻게 만나나요?” 이 질문은 “나는 한번도 자기성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라는 문장과 동의어이다. 늘 화를 내면서도 내면에 ‘화내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늘 의존할 대상을 찾아다니면서도 내면에 ‘엄마가 필요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다. 분노나 의존성을 알아차릴 ‘성인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이’인 상태로 반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이들을 위해 내가 찾아낸 대답은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내면 아이다”라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종교 수행자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보통 사람인 우리가 자기를 알아차리기 가장 좋은 순간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내면에서 격한 감정이 올라올 때이다. 사춘이 논 샀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그것이 ‘나만 덜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구나’ 알아차리는 것이다. 데이트 제안을 거절당했을 때 뜨거운 화가 치밀어오르면 그것이 ‘사랑에 차별당했다고 느끼는 아이구나’ 이해하는 것이다. 소홀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앞에서 견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오르면 그것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내면 아이구나’ 인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격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문제로 상처받은 아이가 내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취약한 사람은 초기 대상관계에서 아이를 존중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양육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부모는 아이의 의사나 욕구는 무시한 채 자신의 방식과 가치만을 아이에게 강요했을 것이다. 심지어 그 부모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애쓰면서 타인이 자기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아이에게 물려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들은 취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더욱 도도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

내면 아이를 이해하고 그 실체에 접근해갈 때 어떤 젊은이는 이렇게 묻는다. “내면 아이는 몇 살인가요?” 심리학 책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엉뚱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누구나 트라우마의 시기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아기 엄마의 긴 공백이나, 대체 양육자에게 맡겨졌던 일이나, 가족의 사건 사고 같은 것. 혹은 아이의 욕구에 지속적으로 어긋나는 양육방식도 아이를 얼어붙게 만든다. 최근에는 인큐베이터에서 양육된 성인의 내면에 근원적으로 불안한 내면 아이가 자리 잡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면 아이 문제를 이해해 나갈 때 마지막에 하는 질문은 “내면 아이는 자랄 수 있나요?”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인 자아와 내면 아이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화가 날 때마다 마구 화를 낼 게 아니라, 성인 자아가 ‘화내는 내면 아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무시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전 부모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내면 아이의 반응일 뿐, 지금 이곳이 나를 무시하는 상황은 아니야.”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화내는 내면 아이를 스스로 달래줄 수 있어야 한다. 일상 속에서 그런 작업을 반복하면 모든 감정들을 고요하게 처리할 수 있고, 마침내 내면 아이의 목소리마저 조용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건강에 가장 필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자기 성찰’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는 내면을 보지 않기 위해 중독 물질에 매달리고, 내면을 회피하면서 타인과 상황을 탓하고, 내면을 본 적 없기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낸다. 무의식의 의식화, 내면 아이 돌보기, 회광반조(回光返照)는 모두 같은 뜻이다.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은 최소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부록 13.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박종인 신부 서강대 인성교육센터

영적인 사람을 딱히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로 연상해 보는 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따스함, 기도, 웃음, 겸손, 지혜, 자비, 부드러움 등이 떠오릅니다.

공자가 사람의 나이 예순을 가리켜 이순(耳順)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서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만큼 많은 것을 나눠 줄 수 있다고 할 만합니다. 물론 공자는 사람이 나이 드는 이치가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나이가 되면 그래야 한다는 당위를 말한 것이겠습시다만, 사람은 모름지기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내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도 알아들을 만합니다.

어떤 개인이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를 무난히 거치며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낙관적 견해는 큰 무리 없이 통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초기 성장 단계들을 무난히 거친다는 것은 그 시기에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 이를 통해 자기애, 독립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습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초기의 성장 단계에서 어떤 보살핌을 받고 습득하는가가 결국 인생 전반을 좌우한다는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성장기를 통해 필요한 삶의 태도를 각 시기에 적절하게 습득할 수 있다면, 그는 앞에서 언급한 영적인 이들이 지니는 면모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본당에서 볼 수 있었던 한 신부님께서 금경축 행사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보좌로 발령을 기다리는 신부들 사이에서 당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주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기억으로도 교우 분들과 긴장을 주고받으며 소위 “까칠한” 본당신부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 그런 소회를 밝히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솔직함과 변화에 대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좀 더딜 수는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곁에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의 자연스런 모습임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 특히 후배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모습은 중년을 넘어서 이가 자신의 경험을 나눠 주고자 하는 배려입니다. 더불어 그 역시 이런 나눔을 통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만남은 그 자체로 풍성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삶을 다할 때까지 성장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 수도생활의 경험에 기대어 보건대, 자신 있게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수도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좀 더 그럴 것이라라는 답을 하고 싶지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타인들과 어울리는 법을 잘 익혀 온 이라면 큰 무리 없이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것이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현실은 어디에든지 형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런 누군가에게 자신과 음식을 나눌 형제들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로 보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당사자가 잘 알겠지요. 아무튼 이런 형제가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수도생활을 하는 이들의 나이 듦과 영적 성장의 비례를 여전히 낙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니, 우선 저부터 과연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 가는지 물어보며 살아야겠습니다.

부록 14.

제 3의 성공

(Thrive : the third metric to redefining success and creating a life of well-being, wisdom, wonder)

조선비즈 연지연 기자

“2007년 4월 6일, 나는 피를 흥건히 흘린 채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려다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고 눈가가 찢어졌다. 광대뼈도 부러졌다.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실신한 것이었다.”

허핑턴 포스트의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 순간을 회상하며 “내게 행운이 왔다”고 말했다. 남들이 봤을 땐 누구보다 성공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삶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2005년 이후 미디어 업계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여성 인사다. 2005년 허핑턴포스트를 창간하고 2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일궈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도 당당히 꼽혔다.

하지만 그는 “성공을 판단하는 전통적인 기준인 돈과 권력에서 보면 나는 분명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쓰러진 이후 그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그 결과 여유와 균형감을 가진 훨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허핑턴이 <제3의 성공>을 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책에서 “다른 성공이 있다”고 말한다. 돈과 명예, 권력만을 성공의 기준을 삼는 것이 크게 잘못됐고,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다른 성공의 기준은 총 네 가지. 웰빙, 지혜, 경이로움, 봉사다.

허핑턴이 말하는 웰빙은 탈진과 소진하는 삶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허핑턴은 벨기에 철학자 파스칼 샤보의 말을 빌어 탈진은 우리 문명의 질병이라고 했다. 성과와 이윤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일종의 ‘장애’라고 그는 진단했다. 기업과 조직 책임자들은 ‘효율성 향상은 곧 근로자들의 탈진과 소진’이란 도식을 깨야 한다고 그는 이 책에서 주장했다.

허핑턴은 “건강한 직원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며 제프리 페퍼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페퍼 교수는 “직원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결과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직원들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으면 기업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허핑턴은 각종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결하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충분한 수면과 명상 등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웰빙을 위한 삶이라고 말했다. 또 허핑턴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내면과 직관이 이끄는 지혜의 삶을 느껴보라고 권했다. 또 일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거래가 아닌 남에게 베풀면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라고 조언했다.

저자는 언론사 회장이나 칼럼니스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성공의 통념을 깬 과학적 연구 보고서나 스트레스에 대한 통계 자료를 탄탄히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추상적으로 아는 명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다채롭게 담으며 설득력을 높였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삼 세 번’이란 말이 있듯,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중언부언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마음이 허한 날 발췌독을 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부록 15.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라

김명숙 자기성장연구소 대표

나에게도 삶의 전략이 필요할까?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라는 것이 우리를 점점 더 지금의 직장에서 내몰리게 한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수동생산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대량생산으로 제품이 생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많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사회적으로도 장기적인 혼란의 시간을 격어야 했다. 과거 역사를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지인 중 한 분이 성공창업을 돕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며칠 전 대구로 강연을 오신다기에 강연을 들으러 가보았다. 시급 1만원시대 대비를 위해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어떤 변화가 일어 날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었고 나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있었다.

과연 음식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흔히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 1인 음식점, 편의점 간편식 등 무인디지털 주문시스템일 갖춘 음식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인건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음식점은 점점 축소가 되고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1인 셰프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 아이들이 주말에 학원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점점 편의점 음식들이 점점 익숙해지게 된다. 빨리 간편하게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세우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강자가 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인생의 2모작 준비가 필요하다. 세상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업종별 유행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점을 찾아 나만의 컨셉을 찾아 가야 한다.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알면서도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다들 행복해 하며 편안함을 즐기게 된다. 편안함을 즐기다 개구리는 끓는 물속에 잠겨 죽고 만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내 삶은 어제와 같이 편안하다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대해, 내 꿈에 대해 기록을 해보길 바란다. 꿈을 기록하게 되면, 스위치가 켜지고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해보면 1,440분이다. 1%의 시간 15분이라도 나에게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매일 아침 나의 사명, 나의 역할, 나의 꿈 리스트를 펼쳐보며 내 인생에 대해 내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나를 찾아가는 사색의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가슴 설레는 꿈을 찾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당신의 인생2모작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바란다.

시급 1만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삶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부록 16.

행복하기 위해 질문하는 방법

삶을 사랑하는 기술 - 줄스 에반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내 감정을 이해하는 법이나 다스리는 법, 삶의 목적에 대해 숙고하는 법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지금 이런 것을 고민하며 글을 쓰고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가 등등.

교육기관은 커리어에 대한 지침만이 아니라 인생 최악의 상태와 최고의 상태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테나학당에서는 제자들에게 감정을 변화시키는 법, 역경에 대처하는 법, 최선의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 학창 시절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교에서는 나의 행복이나 폭넓은 인성 계발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보였다. 또한, 나 또한 내가 학창 시절에 배운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은 커녕, 배운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또한 별로 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대 철학자에게 우리는 행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는 없을까?

영국 최대 규모의 철학 커뮤니티인 '런던필로소피클럽'의 공동창립자이자 운영자인 줄스 에반스는 그의 저서 『삶을 사랑하는 기술』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왜 모두가 나를 인정해야 해?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 있을거야." --- 자기성찰 A

우리는 이런 종류의 자기성찰을 통해 서서히 해롭고 불합리한 믿음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적 믿음을 관찰하는 기법을 '소크라테스적 방법론'이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의 철학(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등)과 그 사람의 정신 및 육체의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믿음은 서로 다른 감정으로 이어지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역시 서로 다른 형태의 정서적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두고 행동한다.

그들은 인정받는 것에 지나친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남들의 이목을 신경 쓰느라 사회불안장애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째서 남들의 이목을 그렇게도 신경 쓰는 것일까? 내가 가진 가치들은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문화를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심리치료의 기술인데, 심리치료를 뜻하는 영어 단어 psychotherapy는 ‘영혼을 보살피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자신의 영혼을 관찰하고 어떤 믿음과 가치가 합리적이며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행할 수 있는 의술의 한 형태**이며, 이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2. 철학은 자신에게 행하는 의술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영혼을 위한 의술은 있다. 그것이 철학이다. 몸이 아플 때와 달리, 철학에서는 외부에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르치려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거닐면서 마주치는 모든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당시에는 인구가 적어 시민들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리고 상대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냈다. 뒷날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불경죄로 재판에 회부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거리를 다니면서 젊은이든 노인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설파하려던 것은 몸이나 재산만 돌보지 말고 영혼을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얘기였소.”

점잖고도 유머러스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철학을 들여다보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도록 이끌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법을 배워서, 부정적인 감정이 발목을 잡을 때 스스로 '내가 지금 현명하게 반응하고 있나?' '이 반응은 합리적일까?' '더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으며, 이런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본성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데도 남에게 얻고 애걸하라고 배운다. (...) [그러나] 평온하게 사는 데 원칙 같은 것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소크라테스는 우리 내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믿음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감정도 달라진다.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

3.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다

행복의 철학은 모두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신은 있는가?’ ‘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 같은 거창한 질문들에 대한 가치와 믿음, 판단과 관련이 있다.

혼자서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든, 이런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답을 선택하는 일은 그 자체로 좋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위 ‘전문가들’ 이 고안한 행복의 조립식 모델 속에 행복을 끼워 맞추도록 하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추론능력과 선택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조건인데 말이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좋은 삶’ 이라는 개념과, 사람들이 질문할 권리와,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적이고 다원론적인 정치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4. 소크라테스적 접근과 행복의 방향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예들은 행복에 대해 단 하나의 정의가 아니라 몇가지 정의를 떠올렸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소크라테스식 단계를 따른다.

1)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이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지니는 믿음과 가치를 관찰할 수 있다.

2)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성을 이용해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따라서 바뀔 것이다. 감정은 믿음을 따르기 때문이다.

3) 인간은 의식적으로 새롭게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특정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사고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실천을 통해 좀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한다.

제한적이거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은 곧 철저히 고통스러운 삶과 적당히 만족하는 삶 사이의 차이를 가르키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친다.

“놀고 있을 시간이 없다.

여러분은 불행한 이들의 변호인 역할을 해왔다. 여러분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 투옥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단두대 밑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지금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세네카

철학은 곧 삶의 기술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나를 이해하고, 제대로 의심하는 것이죠. 저자 줄스 에반스는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잊혀졌던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다시 들려줍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남들이 말하는 행복에 기준에 끼워 맞춘 삶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기준을 만들고 내 방식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부록 17.

윤리와 사고

한성대학교 - 박일태 교수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식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것’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감정이나 의지와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철저히 이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소위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보통 전자를 가리킨다. 주위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많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일반적인 의미의 ‘착한 사람’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며, 옳은 행동을 판단하는 언제나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보통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유사한 상황 속에서 내린 이성적인 판단들을 기억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아마도 ‘상식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사실 두 부류의 추상적인 사람들을 나누어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식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착하다. 그러나 아직 윤리적이지 못하다. 근거 없이 여러분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착하게 살기 위한 다소 막연한 기준들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교에서조차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거의 배워본 바가 없다. 도덕과 윤리라는 과목은 단지 별 내용도 없고 학교 중간 기말고사 때 점수 받기 쉬운 암기과목일 뿐이었다. 고 3이 되면 도덕과 윤리 시간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영어와 수학을 공부해도 좋은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 때에는 그랬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 공부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스스로 좋은 삶, 선한 삶의 기준을 세워 지켜가며 살라는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이다. 물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보며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신부님, 스님들의 강론(설법)을 들으며 선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를 정확히 다시 기억해보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선한 행동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며, 끊임없이 그 결정을 다시 이성적으로 반성하고 수정하며 살아

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인 삶에 대해 배운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분명 ‘상식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 둘은 구분해야 한다.

‘윤리적인 삶’은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상식과 선한 성격’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좋은 삶,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왜 도와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내린 이성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남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남을 돕지 않는 삶을 살아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언제나 끊임없이 달리 생각해보는 삶이기 때문에, 아마도 남을 돕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윤리적 판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를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성에 따르는 윤리적인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삶, 선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반론가능성과 수정가능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보편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그냥 착한 삶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즉 착한 것 선한 것 옳은 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함으로서 나는 나의 결정에 복종하는 식으로 그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자는 기준도 방향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이다. 혹은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복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나 자유의 억압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즉 윤리적인 삶의 순간들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달리 생각해보며 산다는 것을 뜻한다. 단지 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한한 존재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해도 우리의 행동은 얼마든지 나쁜,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윤리적인 판단의 한계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이 생각처럼 그렇게 옳은 행동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서 우리는 그 윤리적인 판단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단순한 감정과 경향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저 ‘나는 그때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논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논리전개과정을 되짚어보면 어디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었는지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나는 곧바로 인정하고 나서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문제를 내가 찾아내어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이 내 문제를 찾아내어 지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성에 따르는 윤리적인 삶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최선의 삶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판단이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밝혀지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나의 의지로는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이다. 내가 완벽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의 은총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따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 수 없다. 내 생각에 이성에 따르는 윤리적인 삶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최고의 삶이다.

우리가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르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윤리적인 삶의 보편화 가능성 때문이다. 윤리적인 삶은 나와 세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의 문제이다. 무인도에 떨어진 나에게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내가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인도가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섬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윤리적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단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선한 행위,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살 이유는 전혀 없다. 결국 다른 사람들 역시 나처럼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윤리적으로 살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 즉 다른 사람이 나처럼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성적인

존재' 이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정하고 따르며 살 수 있다. 이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백 명이면 백 명이 다 다를 수 있다. 즉 같은 상황 속에서 백 명이 모두 다른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이해와 배려, 존중과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방법에서는 공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성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제나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전문가를 찾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행동을 대신 결정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거나,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지문이 다르듯 우리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상식에 맞추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맞추어 나의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서로 다른 토대, 서로 다른 시스템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다양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 즉 이성에 따르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토대가 있다. 이러한 토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삼단논법을 통해 전개된 논증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윤리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교정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이다. 감정으로부터 유발된 선한 행동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정의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설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구속력도, 아무런 지속성도 없는 일일 뿐이다.

나는 ‘이미’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타인은 이미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은 이미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이성적인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를 이성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판가능하고 교정 가능한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 뿐이다. 비판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한 비판에 수정되거나 교정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사회는 아직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비이성적인 사회이다. 비이성적인 사회는 집단이나 무리일 뿐이다.

윤리적인 삶이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삶이다. 그것뿐이다. 다시 말해 윤리적인 삶의 내용,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삶은 착하게 살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의 내용은 각자가 채워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것은 각자의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할 수 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홀히 처신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함으로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구속이다.

나는 지금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감정에 이끌리는 삶과 완전히 다른 어떤 이상한 삶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보다 분명한 삶이다.

하나의 예를 생각해보자. TV 속에서 종종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를 위해 기부해달라는 광고가 등장한다. 그 광고는 굶주린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광고 속 그 아이들의 모습이 불쌍해서 ARS전화를 통한 달에 3만원 씩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보자. 같은 광고를 보고 나서 나 역시 곧바로 ARS전화를 걸어 같은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그러나 나는 동정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달에 3만원이면 20명의 아기들이 한 달 동안 굶어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의 의미와 중요성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나는 매일 수입맥주 한 캔씩을 마신다. 10캔이면 3만원이다. 나는 기아에 허덕이는 20명의 아기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내가 매일 수입맥주 한 캔씩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기부를 하기로 했다. 나의 판단은 이성에 따르는 윤리적인 판단이다. 나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더 이상 TV에서 아프리카의 아기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계속 그렇게 기부를 할 것이다. 나 자신을 그렇게 나의 윤리적인 판단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롭다. 매일 수입맥주를 마시며 느끼는 알팍한 자유보다 나 자신을 나의 힘으로 나에게 복종시켰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매달 3만원씩 기부하기

로 한 나의 행동은 언젠가는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상황에서 다시 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명의 아기를 굶어죽게 하면서까지 꼭 매일 수입맥주를 사 마셔야 할 이성적인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어려운 이유를 찾을 때 까지 계속 매달 3만원씩 기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삶의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롭지 않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감정이나 동정심에 이끌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윤리적인 삶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윤리적인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윤리적인 삶이 아니다. 윤리적인 삶은 오직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이다. 다른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러한 윤리적인 삶이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방치하거나 사회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방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이며 논리학의 문제이다.

부록 18.

자선과 기부 대명사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뭘까

이상민 작가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

이상민 작가가 펴낸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2016년 1월, 라의눈)은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이들이 생각하는 힘'에 있고, 그 근원은 '유대인의 문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식이 무조건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의 성공비결은 일률적이지 않는 교육도 한몫 작용했다. 100개의 질문이 있으면 100개의 정답이 있음을 아는 그들은, 100명의 진로가 다 달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면 모두 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란 다른 생각이다. 이것은 자유로움에서 나오며,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고를 막지 않는 문화가 확립돼 있어야 한다. 창업국가, 기업국가, 노벨상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군대문화를 극복하는데 있다. 통념에 갇히지 않고 나의 사고를 하는 것에 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에 있다. 그러면 한국도 유대인 못지않은 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왜 유대인은 오후 4시에 퇴근해도 부유하고 한국인은 오후 11시에 퇴근해도 가난한가. 일하는 시간을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돼야 한다. 일하는 시간으로 보면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야 한다. 우리는 IQ도 유대인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도 80%에 육박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왜 한국인이 유대인에 비해 뒤쳐질까.

그 차이를 저자는 ▲생각하면서 일한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에 있다 ▲결과의 차이란 시간이 아니라 질의 차이로 결정되는 속성에 있다 ▲상관에게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문화에 있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짚어지는 것에 있다 ▲적게 일하고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일

에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퇴근 이후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 있다 등 여덟 가지로 요약한다.

결론적으로 유대인이 일을 적게 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기인함이 크다는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 중요한 무기는 추상적 사고의 능력이다. 즉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 기반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왔고, 하느님을 통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훈련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 결국 유대인의 힘은 생각에서 나온다. 독특한 생각, 남과 다른 생각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 본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삶에 대한 정해진 답이 없다. 상황에 따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선과 기부는 습관이자 생활이다.

"유대인의 사회는 자선과 기부가 생활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부자들도 그런 문화적 토대 속에서 자연스레 기부를 하고 있다. 유대인의 사회는 결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다. 서로 돕기 때문에 가난해도 살 수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힘은 심리적 안정에서 오는지 모른다. 가난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한번 실패해도 주저앉지 않는다. 사회가 돕기 때문이다. 사회의 도움이 있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그들에게 고난이나 위기는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 본문 중에서

부록 19.

노숙자를 위한 자선 단체, 위트에서 답을 찾다.

올해 초, 뉴욕의 노숙자 수가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뉴욕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노숙자들에 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숙자 수가 날로 증가해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개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계단이나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작은 돈 통을 놓고 구걸을 하는 노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일할 의지마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 단체를 통한 노숙자들을 위한 기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썼으면 썼지, 굳이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색한 인식 때문에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단체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노숙자들을 위한 기부, 위트있게 다가가다

이러한 노숙자들에 대한 기부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위트를 활용한 기부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보통 노숙자들에게 기부한다면 직접 그들의 돈통에 돈을 넣어주는 적선이나 전문 기관을 통해 기부하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아래의 사례에는 구걸하는 노숙자도, 동전을 받기위한 돈 통도 없다. 대신, 위트가 있다.

QR 코드로 동냥하다. Simon on the streets



위 사진을 얼핏 보면 노숙자가 동냥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노숙자가 사용할 만한 담요와 물통, 비닐봉투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숙자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알 수 없는 QR코드가 적힌 박스 조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자선 단체인 ‘Simon on the Streets’에서 실시한 프로모션 활동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처럼 동냥을 하고 있는 QR코드의 모습에 흥미를 갖고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를 찍는다. 이 QR코드는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를 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바로 연결시켜 준다. 쉽게 말하자면, QR코드가 마치 노숙자인 마냥 동냥을 하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기부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부된 돈은 노숙자들에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선단체로 들어가 자선단체가 노숙자들을 위해 그 돈을 쓰게 되어 있다.

노숙자는 없지만 위트는 있다

Simon on the streets는 모두 노숙자들을 위한 기부활동에 위트를 더한 사례이다. Simon on the streets는 노숙자 대신 QR코드가 자리를 깔아놓고 동냥을 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노숙자는 없고 대신 위트가 그 빈자리를 매웠다는 점이다. 이렇게 노숙자를 위한 기부에 노숙자를 없애는 대신 위트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프로모션이 최근 해외의 자선 단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며 새로운 노숙자 기부 마케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기부 단체에게 유용한 전략인 이유는 간단하다. 노숙자를 직접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위트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여 노숙자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는 더럽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빅 이슈’처럼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한 기부 시스템에서도 이는 큰 장벽 중 하나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숙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빅 이슈를 사기위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노숙자 대신 QR코드나 웹 사이트를 기부 통로로 활용한다면 이러한 장벽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아직 많은 필요성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기부에 위트를 활용함으로써 바이럴을 유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다.

노숙자 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최근 아프리카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자선 단체들은 대부분 그들에 대한 인식에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그들의 불쌍함을 보여주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고 가볍고 트렌디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트렌드인사이드에서 발행되었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Show-nate’라는 아티클에서 소개했던 기부의 악세서리화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숙자

들을 위한 기부는 조금 딱딱하고 좋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저 더럽고, 불쌍하고 혹은 사회의 암으로 까지 인식되던 노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가볍고, 재미있고, 도와야 할 대상 중의 하나로 바뀌가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단순히 ‘노숙자 빼고 위트를 더하는’ 기부 프로모션만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 노숙자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가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 얻어진 돈을 노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을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위트가 적절히 만났을 때 진정 노숙자들을 위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부록 20.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실현해야 할 정의

윤홍식 교수 -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똑같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사회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가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복지를 누리는 사회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해 우리는 한국 복지체제의 기본가치로서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의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본 가치 중 하나였다. 복지국가, 특히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사민주의와 등치시켰을 때,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정의’는 이미 복지국가의 기본 가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래 자유, 평등, 연대의 실현을 통해 19세기와 20세기의 운동가들이 이루고자했던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였음을 알고 있다. 해방 이후 70년, 분단 이후 70년 동안 한국사회가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최근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복지국가 또한 민주주의, 평화,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한국사회를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변화시키고자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정의는 한국 복지체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다.

한국 복지체제가 지향하는 기본가치로서 정의는 시민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자신의 노력이 공정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사회,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의 꿈을 위해 동등한 출발선 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자신의 처지와 조건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누구나 그려보고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는 한국 복지체제가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국가에서 성취에 기반 한 정의는 자신의 기여에 조응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새삼스럽게 성취에 기반 한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성취에 기반 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중간계급은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보편주의 복지체제로부터 이탈해 나갈 것이며, 중간계급이 이탈하는 순간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하지만 성취에 기반 한 정의는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담고 있다. ‘성취에 기반 한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정의가 필요하다. ‘기회의 평등에 기반 한 정의’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시민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인이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질 때까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 ‘기회의 평등에 기반 한 정의’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복지정책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등한 성취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의는 성취와 기회의 평등과 함께 필요에 기반 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누구나 낙오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그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에 의한 정의는 바로 이를 실현하는 가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의 가치를 보편주의 복지국가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의는 개인의 정의를 사회의 정의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복지국가로의 역사는 그 전환이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만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국 복지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로서 세 가지 정의의 실현을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낼 책임이 있고,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야할 책임 또한 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어제, 오늘도, 내일도 노력한다는 것이다.

부록 21.

'회복적 정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영 / 한국평화교육훈련 원장

회복적 정의란?

“사법제도 안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밑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 혁명운동은 우리 일의 가장 근본적 구조부터 바꾸어놓고 있다.” 이 말은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발간한 보고서 서문 중에 일부이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 중 한명이었던 바라자스(Eduardo Barajas, Jr.)는 회복적 정의의 대두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개혁의 역사의 틀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사법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서 진정한 발명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1)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자.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단계이든 사회의 단계이든 바로 정의(正義)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느낄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물(법)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참관이나 참석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에서 밝힌 대로 회복적 정의는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 데 있지 않다. 회복적 정의가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사회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에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 단지 참여자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되지 않더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필요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되 관계 회복과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회복적 정의는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2)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정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정의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사자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하며, 어느 한 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보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의 뿌리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동체 정의(Community Justice)와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두 축이다.

서구에서 발단한 사법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록 그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현대 사법제도가 낳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그 문제점을 풀어가는 데 있어 좀 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법의식을 고려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실 현재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불과 몇 세기에 불과하다. 이전의 분쟁해결 수단은 매우 개인적 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집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사법도 실제로는 공동체에서 만들어 진 전통적 방법을 따라 일정한 규칙과 과정을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개인간 직접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복수는 자제되었고 공동체의 리더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범죄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고 문제였다. 공동체에서 정의를 찾아가던 방법은 구성원 가운데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만들어 낸 해결해야 될 필요에 맞춰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처벌이란 영어 단어 punishment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pune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돈을 교환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죄를 뜻하는 guilt도 Anglo-Saxon의 geldan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지불payment이다(4).

공동체적 사법은 처벌에 초점보다는 구성원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처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찾는 곳이 늘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나온 가족 간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나 북미의 원주민 전통에서 나온 양형 서클(Sentencing Circle)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서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가 강화되는데 많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매우 회복적이다. 서구 사법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율법과 언약법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그 본질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의 사이에서 만들어 지키도록 한 계약의 목적은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인간들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장치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살롬의 원칙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살롬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다.

따라서 예수는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율법에 억매어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려 하였다.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살롬의 메시지는 하느님이 용서한 것처럼 인간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성서에 나타난 신의 처벌적 모습만 강조한 나머지 중세 신의 대리인으로 자칭했던 왕들이 중앙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국가 주도의 형사사법 제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적 사랑과 화해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정의를 이뤄내는 것이 살롬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던 기독교인(메노나이트 교인)들에 의해 초기 북미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나타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초의 시도: 캐나다 엘마이라 사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소년사법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은 형사적 제재 위주의 사법절차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훗날 첫 번째 회복적 정의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미라 사건은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VOMP/VORP)로 발전하게 된다.

1974년 어느 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Elmira, Ontario)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턴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십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위원을 맡고있던 메노나이트 교도인 마크 얀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월트 (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본인들이 이 십대 용의자들을 대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을 담당판사에게 제안하였다.

물론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놀랍게도 담당 재판관은 마크와 데이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하였다. 단, 한 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법정에게 최종판결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들이 턴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들어야 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렀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둘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실

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만도 이 청소년들을 용서해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심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년범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가장 잘 실천된 곳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가족 간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된 가족 간 협의회 모델에서는 19세 이하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 간 협의회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나누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이 모임의 진행은 전문조정 훈련을 받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 소년지원과의 직원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영적지도자나 어른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 양측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가족 간 협의회(FGC)는 형사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정의의 정신이 구현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 안전성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다.

도쿄는 이렇게 노숙자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월간 조성 김정우 기자

밤 11시 서울역 대합실

『아저씨, 여기서 술 드시면 안 돼요. 거긴 담배 끄시고요』

지난 3월6일 밤 10시50분 서울역 대합실, 막 술판을 벌이려던 노숙자들에게 철도公安요원이 주의를 준다.

『아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안 됩니다. 어서 치워 주세요. 역내는 금주·금연입니다』

술 한 잔만 하겠다던 이들은公安들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지만, 큰 소란 없이 곧 흩어졌다.

일본 최대 노숙자 집결지였던 도쿄 우에노공원.

5분 후, 자리에 남아 있던 한 남자가 다시 담뱃불을 붙인다. 조금 전 담배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安모(41)씨다.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담배를 숨겼지만, 곳곳에 배치된公安요원의 눈을 피하긴 어려웠다. 安씨는 결국公安요원과 함께 사무실로 동행해야 했다.

서쪽 출구 옆 물레방아 조형물 뒤에선 일명 「짤짤이」 판이 벌어졌다. 삼삼오오 모인 그들은公安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올까 망을 보며 100원짜리 동전을 흔들고 있었다.

한 60代 노인은 형형색색의 옷과 머리스타일을 뽑내며 그 주변을 돌아다닌다. 그의 손엔 흰 쌀 한 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얼핏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개성이 넘친다.

5분이 지나자 철도公安 사무실로 갔던 安씨가 다시 돌아왔다. 별일 아니었다는 듯 웃으며 소주 한 잔을 몰래 따라 마신다.

바로 옆 의자에는 52세 崔모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노숙을 막으려고 만든 팔걸이를 베개 삼아 누운 그의 모습이 나름 편안해 보이기까지 한다. 대합실 한쪽이 삶의 터전이 된 그들과, 그 옆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민들, 이젠 당연한 일상이 된 서울역의 풍경이다.

매일밤 300여 명 노숙자가 「서울의 관문」을 점령하고 있었다.

「11시 정각에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막차 안내방송이 나오자, 공익근무요원들이 노숙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청소 시간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와 주세요. 어서요』

수백 명이 모두 이동해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기차 곤탈 거라고 화를 내기도 한다. 술에 취해 人事不省(인사불성)이 된 한 남자는 의자 위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안 되겠다, 끌어』

공익근무요원에 끌려가는 노숙자

수차례 큰 소리로 깨우던 직원이 결국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의자에서 들어올린다. 자그마한 체구의 60代 남자는 앉은 자세로 끌려 나갔다.

『저 어른 원래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노숙하기 전엔 완전 엘리트였다는데...』

함께 지켜보던 한 남자가 말을 걸어 왔다. 옷차림은 깨끗한 편이었고, 나이가 꽤 젊어 보였다.

원래 K대학 법대를 나왔대요.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잠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다쳐 버린 겁니다. 그 후론 저렇게 항상 술에 찌들어 잠만 자요』

기자라고 소개한 후 취재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쑤씨」라고 소개하며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한다.

『저는 이곳에 온 지 4개월쯤 돼 갑니다. 아직 신참이죠』

—왜 노숙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양말장사를 1년 정도 했어요. 오토바이를 몰면서 했는데 돈도 꽤 벌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여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팔을 다쳤습니다. 그 후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돌아다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는 원래 집이 부산이었다. 공업고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갔지만 잘 안 맞아서 백화점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양말장사를 시작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상으론 1970년생(38)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나이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가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곧바로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었다. 사고로 다친 팔 때문에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한눈에 봐도 왼팔은 완전 마비였다.

『서른 살 때 작은 사고를 당해 보건소에 갔습니다. DNA 검사 할 일이 있어 했는데,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믿었는데 충격이었죠. 생모가 따로 있다는데, 살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쑤씨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 지금은 정년퇴임했고,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사정은 아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좀 생겨 몇 해 전부터 별거 중이에요. 저하고도

안 좋은 일이 있고 해서 부산엔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노숙할 생각입니까.

『곧 들어가야죠. 작년부터 2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돈이 좀 나옵니다. 새벽에 일 할 사람 구하러 오니까 내일 부지런히 일어나서 가봐야죠. 오늘 오전에도 이삿짐센터 가서 일하고 왔어요』

술판에 고성 오가

홈리스들이 나간 자리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는 숙식 제공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노숙자와 일반인,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구분하잖아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성공해 잘살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밤, 서울역을 다시 찾았다. 분위기는 여전했다.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고성이 여기저기 오갔다. 날씨가 좀 풀려서인지 서울역 광장 주변에 사람들이 꽤 많이 보였다.

광장 한 곳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술에 취한 노숙자끼리 한 물건을 놓고 서로 시비가 붙은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말리기도 하고, 몇몇은 계속 술을 마신다. 한쪽에 선 무심하게 자기의 일을 보고, 추운 바닥에 누워 자는 이들도 있다.

한 아랍계 외국인이 이 장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사이드」라 소개한 그는 『세계 어느 나라든 「홈리스」는 존재한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원인분석에 근거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했다.

『아쉬운 점은 이곳이 서울역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관문인 이곳에 너무 많은 노숙자가 있어,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는 그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업차 일본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홈리스는 어쩔 수 없더군요. 공원과 驛舎(역사) 곳곳마다 천막들이 넘쳐났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눈에 띄게 확 줄었어요』

『홈리스(ホームレス)」, 「노주쿠샤(野宿者)」 등으로 불리는 일본의 노숙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다. 공원에 큰 천막을 치고, 개와 고양이를 키우기도 한다는 그들을 본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했다.

아랍 관광객, 「의심나면 도쿄에 가보라」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고요. 의심나면 한번 가보시든지요』

경제대국의 노숙자는 어떤 모습일까. 일본은 어떻게 정책적 성공을 거뒀을까. 결

국 기자는 도쿄(東京) 하네다行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3월9일 오후 4시,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에는 꽃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벚꽃 구경하기엔 이른 날이었지만, 한두 그루에 핀 몇 송이 꽃을 보기 위해 가족과 친구 단위로 이곳을 찾아왔다.

우에노 공원은 한국으로 치면 서울역쯤 된다. 도쿄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를 볼 수 있다. 공원을 한 바퀴 둘러봤다. 구석구석 천막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선 적은 편이었다. 함께 동행한 이지웅(27)씨는 『2~3년 전만 해도 이곳은 홈리스들의 천국이었다』며 공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일반 사람들이 공원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예전엔 이 큰길가로 천막들이 가득했죠』

일본 홈리스 취재는 쉽지 않았다. 공원을 돌며 말을 걸어 봤지만, 대부분 인터뷰를 거절했다.李先生은 『홈리스든 아니든 일본인은 일단 사생활에 엄격하다』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깡통을 주우며 돌아다니는 한 노인이 보였다. 150cm 정도의 키에 누더기 옷을 걸친 이 넘마주이 노인은 여기저기 쓰레기통 있는 곳을 옮겨 다니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기자」라 소개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그는 『돈을 줄 수 있냐』고 되묻는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전부 털어 주고 나서야 그는 짧은 인터뷰를 수락했다.

우에노에서 만난 70代 노숙자

이름은 사사오카(笹岡)氏. 도쿄 출생으로 나이는 76세. 건설 막노동을 해오다 16년 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공원 노숙을 시작했다.

—왜 홈리스 생활을 시작했나요.

『60세가 넘으니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젊은이들한테 밀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리로 왔죠』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어디 있겠어. 평생 혼자 살았는데』

그는 동전을 몇 번 헤아리고는 『이제 가 봐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다.

공원 입구에선 한 노인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우에노 공원에선 동물을 키우는 홈리스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노인의 이름은 오오에(大江・64)氏, 올해로 노숙 20년차다. 가족은 따로 없고, 그저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산다』고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따로 하는 일은 없죠. 아침에 일거리가 생기면 나가고 없으면 놀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홈리스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모두 어디 갔습니까.

『무슨 센터인가 하는 곳하고 도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을 따라

갔어요』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추방했나요.

『그렇게는 못 해요. 그냥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냐」고 물었습니다. 꽤 많은 홈리스들이 보호시설로 떠났죠. 다시 오지 않는 걸 보니 잘된 것 같아요』

신주쿠驛, 홈리스 한 명도 안 보여

오오에氏가 손으로 잔디밭 쪽을 가리켰다. 「立入禁止(입입금지)」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다. 홈리스들이 살던 잔디밭 주변을 통제선으로 막아 버린 것이다.

우에노 공원과 함께 홈리스로 유명한 곳이 「신주쿠(新宿)」다. 도쿄 서부의 상업 중심지로, 백화점·극장·음식점들이 초고층 빌딩으로 밀집해 있는 곳이다.

홈리스들은 주로 신주쿠역과 도청 앞 중앙공원에 진을 치고 있다. 노숙자 분포로 따지면 신주쿠역은 원래 한국의 영등포역쯤 되는 곳이었다고 한다.

3월10일 오후에 찾아간 신주쿠역엔 홈리스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통역을 맡은 李泰勳(이태훈)씨는 『3년 만에 강산이 변했다』며 그 변화를 놀라워했다.

『2~3년 전만 해도 도쿄도청으로 가는 지하철은 밤낮 할 것 없이 홈리스들의 차지였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구조 자체에 많은 변화가 보이네요. 물론 밤에는 다시 모이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하도 우측엔 무빙워크가, 왼쪽엔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었다. 홈리스들이 선호하는 공간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다.

『홈리스들은 보통 기둥이나 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둥 주변엔 화분을 놓고, 벽엔 조형물을 세우죠. 아니면 무빙워크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공공시설의 구조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 홈리스에 대한 도쿄都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3월10일 오후 2시, 李泰勳씨와 함께 도쿄都 복지보건局을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사카모토 히로부미(坂本博文) 생활복지부 副參事(부참사)는 일단 통계자료들부터 펼쳐 보였다.

『1997년부터 11년 동안 도쿄內 홈리스 통계입니다. 1997년 3700명으로 시작해 5800명까지 증가했다가 지금은 320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기간은 2004년부터 4년간이다. 6년 동안 5500명 이상을 유지하던 홈리스 수가 연간 최대 20%까지 감소했다.

—홈리스의 특성상 통계의 정확성이 높지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전체 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연도별 비교는 가능하죠. 구체적인 방법은 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통계를 냅니다』

—1997년부터 3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취업을 감소입니다. 한국도 같은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증가한 이유는 양국이 비슷합니다』

월 3000엔으로 해결 가능한 주택, 도쿄都가 지원

신주쿠驛舎 内 노숙을 막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과 화분들.

—한국은 3000명 전후로 계속 비슷한데, 일본은 2004년부터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都·區 공동으로 진행했던 「자립지원시스템」을 기초로 직접 집을 빌려 주는 긴급조치까지 추가했습니다. 홈리스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한 정책을 추진했죠.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副참사는 「홈리스 대책 현황」이라는 제목의 큰 도표를 보여 줬다. 각각 네 단계로 나뉜 「자립지원시스템」과 「지역생활移行(이행)지원」의 순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접수된 모든 홈리스들은 일단 「긴급일시보호센터」로 갑니다. 기본적인 상담과 건강진단을 받죠.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단계로 옮겨집니다. 자립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자립지원센터」로 가서 취업지원을 받게 됩니다』

—각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긴급일시보호센터는 1개월 동안 입소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죠. 자립지원센터는 2개월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 3단계에선 생활취업지원을 강화하고, 4단계는 사회생활복지, 즉 주거시설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집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都에서 운영하는 주택에 들어가기도 하고, 都에서 임대료 절반을 지원하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기도 한다. 월 1만 엔(약 10만원) 정도 내면 되는 宿泊所(숙박소)를 활용한다. 모든 단계는 우선 홈리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진행된다.

『이 네 단계 시스템은 주로 단기간 노숙했던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은 자립할 의사가 충분히 있고, 취업 지원으로도 그 효과를 충분히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년 이상의 홈리스들이에요. 이들은 일자리보다 집을 우선 구해 줘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이 「지역생활이행지원」이라는 사업이다. 공원에 천막을 치고 장기간 노숙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월 3000엔(약 3만원)만 내면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금을 비롯한 나머지 임대료는 도쿄都와 23개 특별區에서 부담합니다. 4년간 1857명이 혜택을 봤어요』

—반발은 없던가요.

『갈지 안 갈지는 본인 의사대로 합니다. 저희는 지원사업을 소개만 할 뿐이죠.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주택지원사업 실시 첫해에는 약 60%가 응했고, 다음해에는 50%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홈리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노숙자 주택임대 위해 970억원 지원(2007년)

—2년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해 입주한 1190명 중 60%가 자립에 성공했어요. 나머지 40% 중 85%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됐고, 15%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월 1만 엔(10만원)짜리 숙박소로 가는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 정도만이 홈리스로 돌아간 셈이죠』

—都에서 주택을 임대해 주면 예산이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약 10억 엔(970억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8%는 이용자들이 냈고, 나머지는 도쿄都와 23개 區에서 절반씩 냈습니다』

—한 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긴급일시보호센터·자립지원센터·순회상담사업 등을 포함해 약 32억 엔(320억원)입니다』

—예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있을 텐데요.

『2002년에 제정된 「홈리스 자립지원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홈리스 자립과 국가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방침은 정부가 내리고, 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웁니다. 조금 전 설명한 지역생활이행지원이 바로 실시 계획입니다』

—일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오사카나 요코하마는 아직 도쿄처럼 실시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사카모토 副참사는 질문할 때마다 준비한 책자를 펼쳐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줬다. 대부분 내용은 작년 5월에 발행한 「도쿄 홈리스 白書(백서)」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돼 있었다. 구체적인 통계와 현황들로 구성된 데이터는 모두 정확한 원인분석과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보로 이용된다.

핵심은 「취업」과 「주택」

도청 옆 중앙공원에 천막을 치고 있는 홈리스들.

—홈리스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취업」과 「주택」입니다. 이 둘을 장기적 관점으로 놓고 봐야죠. 무작정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하루 이틀 재워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각자 홈리스를 시작한 원인이 분명 있으니,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우선 강제적 이동이나 철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자립지원시스템을 권합니다. 강제로 집행할 규정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강요보다는 설득이 우선이죠』

사카모토 副참사는 「기회」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자립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생명이 위험할 땐 적극 구조하는 것이 참된 임무라며,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기회의 제공」 이후 과정이다. 한 번 그 자리를 떠난 홈리스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화분·조형물·표지판 등으로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서울市는 현재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일자리 찾기 사업」·「자활의 집」(주택 전세자금 지원)·「쪽방상담소」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자의 자활을 돕고 있지만, 예산과 기관 규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市, 『아직 보고서나 白書 없다』

서울市에 사업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아직 보고서나 백서 형식을 갖춘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자료는 민간단체인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의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서울市는 최근 사업규모의 한계를 인정, 「노숙인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재 마땅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민간지원단체 사회복지사는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냐』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카모토 副참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 도청 옆 중앙공원으로 향했다. 이곳도 왕년에 홈리스들로 꽤 유명했던 곳이다. 통역을 도운 李泰勳씨와 함께 공원 곳곳을 둘러봤다. 짙은 색 완장을 찬 요원들이 쉬지 않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완장엔 「순회경비」라는 글자가 보였다.

공원에서 노숙할 만한 장소는 이미 통제된 상태다. 잔디밭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었고, 공원內 벽들 앞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엔 「불편한 삶을 상담하러 오세요」라는 내용의 홈리스 시설 안내 팻말이 꽃혀 있다.

가라오케 건물 개조해 자립지원센터 활용

「홈리스 긴급조치」 실시 전과 후의 우에노 공원을 비교한 사진(도쿄都 제공).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 법, 공원 출구 쪽에 천막을 짓고 사는 두 남자를 만났다. 사토(佐藤·56)氏와 사쿠라바시(櫻橋·59)氏다. 그들은 각각 8년과 20년째 노숙 중이다.

사토氏는 결핵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 도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물으니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곳 중앙공원에서도 많이 떠나갔나요.

『많이 갔죠. 몇백 명쯤 갔을 겁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앙공원에서만 232명의 홈리스들이 직접 주택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갈 때가 아니라며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솔직히 이곳 생활을 오래해서인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옆집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요. 당분간은 이곳에 계속 머무를 계획입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도쿄 주오(中央)區에 위치한 「주오료(中央寮)」를 찾았다. 「료(寮)」는 「기숙사」라는 뜻의 일본어로, 정식 명칭은 「노상생활자자립지원센터」다.

야마다 아키히코(山田明彦) 소장과 사쿠마 마사오(作間政雄) 자립지원담당주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그들은 7층 건물 전체를 돌며 내부 시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원래 이곳은 대형 가라오케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면서 기숙사 형태로 개조했죠』

사쿠마 주사는 먼저 7층의 식당으로 안내했다.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 노인이 TV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은 도시락으로 제공합니다. 점심은 대부분 일자리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먹을 수 있게 돈을 줘요』

—한 끼에 얼마를 제공합니다.

『500엔(약 5000원)입니다. 이분은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래층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간단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엔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면접이나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빌려 입을 수 있게 제공합니다. 복장 때문에 구직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옆 세탁실에는 각각 7대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다. 모두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2층부터 5층까지는 모두 숙소이다. 한국의 쉼터나 상담보호센터는 넓은 방 하나에 모두 들어가야 하지만, 이곳은 5~6명씩 따로 방을 이용한다.

『단기간 홈리스는 일자리가 우선』

방 안은 깨끗했다. 2층 침대가 3개 정도 놓여 있고,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모든 침대엔 1·2층 따로 커튼이 설치돼 있고, 문 바로 앞엔 개인물품 보관함이 놓여 있었다. 「기숙사」에 가까웠다.

『홈리스를 했던 사람들도 사생활은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야마다 소장은 시설을 돌아본 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다.

『자립하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자신의 가치를 키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없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어렵죠』

이들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자립지원센터에서 자택주소를 제공하고, 취업 관련자와 협의를 통해 비밀을 보장해 준다. 직장에서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동료들은 알 수 없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 6~7시까지 아침식사를 합니다. 저녁식사는 오후 6~9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자유롭게 먹으면 돼요. 나머지 시간엔 일반인들과 같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직장에 가고 일을 하죠』

「0B 모임」

—술은 마실 수 있나요.

『금주입니다. 입소할 때는 물론, 일을 할 때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적응자들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1차적으로 긴급일시보호센터를 거쳐오기 때문에 이곳은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몇 번 주의를 준 후 그래도 안 되면 퇴사시키죠』

—홈리스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과 주택과 음식,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르죠. 단기간 노숙일 경우는 일자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아직 충분히 자립할 의사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전 수료한 M씨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75세로 최고 연령자였죠. 어느 나라든 노인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일본의 경우 집도 잘 안 빌려 줍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자립을 희망했습니다. 계속 그는 면접을 보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죠. 지금은 좋은 일자리와 집까지 구했습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야마다 소장은 곧바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펼쳐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하는 사진들이었다.

『「0B 모임」 이에요. 이곳에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나누는 행사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우리는 그들의 현재 생활을 점검하죠. 사람을 향한 복지서비스는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애프터서비스, 그들의 생각은 이미 한 단계 더 앞서 가 있었다.

영등포역 부근 노숙자보호시설

3월12일, 귀국 후 곧바로 영등포역으로 향했다. 여전했다. 여기저기 기둥과 벽에 자리 잡은 노숙자들과 어수선했던 분위기,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술판….

사회복지사들이 나와 상담을 하고 있지만, 수적으로나 지원방법 등에서 여전히 열세였다.

『지금은 주로 건강상담이나 간단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담보호센터나 쉼터를 한 번씩은 다녀왔던 분들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회복지사들의 안내를 받아 인근의 한 상담보호센터를 방문했다. 건물 밖에서 봐도 열악한 모습이다. 20년이 넘은 건물 외벽은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었고, 바로 앞 철길엔 영등포역에서 출발한 열차와 전철이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꽤 좋은 급에 속합니다. 다른 곳들은 말도 못 해요』 한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와 함께 시설을 둘러봤다. 확실히 도교와 비교됐다. 큰방 하나에 수십 명이 모여 잠을 자야 하는 숙소, 좁은 화장실과 샤워 공간, 그리고 20년이 된 사무기기 등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市에서 지원할 때 「1평당 1人」이라는 기준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저희가 150평이니 150명이 잡힌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노숙인의 인권은 생각 밖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곳을 처음 찾은 한 노숙자를 만날 수 있었다. 61세의 柳모씨로, 거의 평생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한눈에 봐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아픈 곳이 있냐」고 물으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한다. 인터뷰보다 밥이 우선인 것 같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며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 놓기 시작했다.

『제가 1948년생입니다. 세 살 때 전쟁 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홉 살 때 再嫁(재가)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의붓아버지 집에서 스무 살 때까지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 일만 했죠』

柳씨는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시커먼 탄광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밤엔 공동 숙소에서 겨우 잠을 청했다.

『20년 전쯤 서울로 왔어요. 탄광은 아무래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양평과 서울을 오가며 공사판을 돌았어요』

—집은 없었나요.

『일 끝나면 스티로폼 대충 깔고 자는 거죠. 따로 집을 구해본 적은 없어요』

—정부나 市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데, 왜 이용을 안 하셨나요.

『제가 까막눈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글을 전혀 몰라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그저 육십 평생을 묵묵히 혼자 일하고 먹었다. 「옆모습 사진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으니, 『잃을 것 하나 없다』며 『정면으로 찍으라』고 한다.

『한강 다리에 올라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지하철에 뛰어들려고 한 적도 많았고. 작년 겨울엔 일주일 동안 꼬박 굶은 적이 있어요. 이곳이 제 삶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습니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林永寅(임영인·48) 소장은 삶의 끝자락에 선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관심과 각자에게 맞는 지원』이라고 했다.

『최근 그나마 있던 쉼터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노숙인 지원 시스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林소장은 정확한 노숙인 분류를 통해 각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을 시작한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온 사람과 일시적으로 파산한 사람에게 모두 같은 기준의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니 문제죠. 자립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에 맞게 발판을 마련하면 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면 됩니다』

『정부와 시민의 자세가 먼저 변화돼야』

다시서기센터는 3년 전부터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다. 그간 30여 명의 노숙자가 정식수료를 마쳤고, 이 가운데 19명이 취업을 통해 자립에 성공했다.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하겠다고 하니, 처음엔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더군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해 잘 운영을 하니 또 빈정대며 이렇게 묻습니다. 「좀 바뀔니까」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정부와 市,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죽음만을 기다리는 곳 아닙니다"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이준호 의학담당기자

올해에도 노벨문학상 유력 수상 후보로 거론됐던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서 “죽음은 삶의 대극(大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일상과 무관하고, 삶과 거리가 있게 느껴지지만 사실 죽음은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 대단히 죽음에 인색하다. 입에 올리는 것마저 거북해한다. 매일 죽음을 접하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까?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마리아 병동(호스피스 병동)의 이인순(李仁順) 수녀를 만났다.

“저는 죽음이 삶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니까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모든 여정에는 그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던진 우문(愚問)에 이인순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소인의 입장에선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매일 죽음을 맞닥뜨리는 일이라니. 일이 어렵거나 도망치고 싶을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이인순 수녀는 되레 의아해한다. 소임받은 일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인순 수녀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 부임한 것은 국제성모병원이 개원한 2년 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 수녀회로부터 소임 이동 명을 받고 이곳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이 수녀는 간호사이면서도,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겐 이곳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다들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환자와 가족들과의 만남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병동에서 함께 산다고 볼 수도 있죠. 돌보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습(襲)까지는 아니지만 시신을 정성껏 닦고 새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보내드리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요. 스트레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가족이 치료 대상이 되는 이유

이렇게 어려운 일인 호스피스는 무엇일까?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통증 경감과 기타 신체적 증상 조절, 심리·사회·영적 돌봄을 통해 ‘남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죽음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의 마감과 가족과의 이별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에선 지난해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그 대상이 다른 질환의 환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이인순 수녀가 있는 마리아 병동에는 33개 병실이 있다. 환자가 머무는 시간은 평균 한 달 정도. 물론 길면 두 달, 짧으면 일주일 이내에서 몇 시간까지 차이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이 일반 병동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바로 '가족'에 대한 관점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선 가족도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이 수녀는 말한다.

“‘사별 상실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죠. 보통은 13개월에서 3년 정도면 사별 상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들 해요. 하지만 그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여전히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충격, 즉 삶의 스트레스 1위이지만 최근에는 형제·자매와의 사별도 그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별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고통을 겪은 다른 사람들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겐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별 상실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말합니다. 자녀나 가족들로부터 ‘이제 그 애기 좀 그만해. 잊을 때도 됐잖아’라는 말을 듣는다고요. 죽음을 터부시하고 외면하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고인에 대한 이야기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사별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심한 경우 50년이 지나서 사별 상실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별을 겪었던 당시에 상실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표출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러한 슬픔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나’와 ‘슬퍼하고 있는 그 당시의 나’를 대면하고 인정하면서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병명 알고 죽음 맞는 환자 적어

현재 호스피스 병동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원하면 모든 환자가 암 환자다. 그러나 실제로 병명과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오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 수녀의 설명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에게 권하는 것이 ‘진실 통고’ 혹은 ‘나쁜 소식 전하기’예요.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자는 것이지요. 환자에게 병명이나 의료적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호자, 즉 자녀분들이 당사자들에게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에게 가벼운 병명으로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 ‘진실 통고’ 를 권하면 보호자들 반응이 대부분 비슷해요. ‘아마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요, 삶의 끈을 놓으실 것 같습니다’ 등등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 환자 본인이잖아요. 자신의 남은 삶을 삶의 주인이 갈무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막는 셈이죠. 환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인들에게 진단명이라는 이름으로 말기 암을 알리고 현재의 의료적 상태를 알렸을 때 심리적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 환자에게 진실 통고를 할 때 심적 부담이 된다면, 보호자가 그 짐을 떠안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의료진의 몫이니까요. 가족 중에 말기 암 환자가 있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환자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주들, 즉 어린아이까지요.”

어린이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녀는 말한다. 어린이들이 놀란다는 이유로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 사별 현장 또는 조부모 사별 현장에서 배제된다. 결국 남는 것은 기억뿐인데, 부모와의 마지막 추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수녀의 이야기다.

병명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고 숨기더라도, 환자는 병 진행에 따른 본인의 몸 상태의 변화나 병동의 환자들, 주변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환자는 자신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안다는 사실을, 또 가족은 환자가 눈치 챘다는 것을 알아도 입을 닫는다.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워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숨기는 것이다. 슬프게도.

시한부 환자가 겪는 5단계

그렇게 알게 된 말기 암에 대한,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반응은 어떨까.

“호스피스에 어머니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zabeth Kubler Ross)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했어요. 맨 처음엔 부정하죠. 결과를 믿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요. 그러나 같은 결과를 듣게 되지요. 그럼 ‘하필 내가 왜?’ 라며 자신이나 가족 또는 병원 직원, 더 나아가 신에게까지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존경과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 격한 분노가 한결 누그러집니다. 진실과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사실을, 죽음을 인지하지요. 하지만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요. 종국에는 신과의 타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울해지고 수용하는 과정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감정 상태를 보이지는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큼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일까. 또다시 튀어나온 모호한 질문에 이 수녀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해줬다.

“그 전에 바르게 사셔야 해요. 잘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말년에 웰다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가족과의 불협 화음이 있는 경우의 환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요. 마지막까지 외롭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환자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는 남은 가족한테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별의 아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남기는 셈이니까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죽음 역시 인생의 방점이고 현실이니까. 로맨틱할 이유도, 동정만 할 일도 아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택 임종’ 하고 싶어도 못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의학적으로 임종 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단다. 때문에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환자를 임종실로 모시고 차분히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족들과 이별할 시간도 마련한다.

“임종실을 해밀방이라고 불러요. 해밀은 비온 뒤 맑은 하늘을 뜻하는 우리말이에요. 해밀방으로 옮겨지면 환자와 가족들이 그간 하지 못했던 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라고 권해요. 서로가 청할 것이 있으면 청해서 용서받고, 화해하라고요. 이런 과정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한번은 의식이 없는 아버지(환자)와 가족 모두가 마지막 인사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환자의 의식이 살짝 돌아와, 네가 했던 말 다 들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환자의 큰아드님이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는 의식이 없어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환자가 임종하면 이 수녀와 담당 간호사는 고인의 몸을 닦고 준비해뒀던 옷, 생전에 좋아했던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 수녀는 이 과정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인의 얼굴을 잘 닦아드리고 정돈된 모습으로 가족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려요. 그러면 가족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피 토한 흔적 없는 깨끗하고 편안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가족은 위로를 받아요. 편한 얼굴을 보고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믿고 싶은 거죠.”

환자들은 생의 마지막 장소로 병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많은 환자들이 임종 장소로 집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병원이 선택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다.

“집에서 환자를 24시간 간호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환자를 돌보는 문제도 있지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망 확인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의 현장이 자연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이니까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인 거죠. 현재는 꼭 가정에서의 임종이 아니어도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올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병원에서도 같은 돌봄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돌봄 제공자들이 연계되어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반응도 좋아요.”

죽음 앞에서 가족들의 모습은 어떨까. 이 수녀는 예외 없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수고했다. 고통 없는 좋은 데로 가라” 고.

“다들 그러세요.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고통 없는 데로 먼저 가라고 하면서 덧 붙이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만나자고. 아마 우리네 민간신앙이 바탕에 깔렸겠지만, 죽음 너머에는 여기가 아닌 어딘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해요. 좋은 곳에 먼저 가 있으라고. 다시 만나자고.”

이 수녀는 마지막으로 잘 죽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송나라의 주신중(朱新中)이 훌륭한 죽음에 대해 5멸(五滅)의 실천을 이야기했어요. 멸재(滅財), 재산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멸원(滅怨), 원한을 남기지 말 것. 멸채(滅債), 남에게 빚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멸정(滅情), 정분을 남기지 말고 죽을 것. 마지막으로 멸망(滅亡),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것이라고요. 인생 여정의 붙잡고 있기와 놓아주기를 균형 있게 한다면 하루하루 잘 죽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록 24.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노컷 뉴스

IQ 70, 7세 수준 아이가 '자발적 성매매' 했다는 법원 판결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가명·당시 13세)이는 지난 2014년 6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별안간 사라졌다. 갖고 놀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을 깨뜨렸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혼이 날까 두려워 가출한 것.

갈 곳 잃은 하은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방에 들어온 양모(25)씨를 따라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로 갔다. 양씨는 어두운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하은이에게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른 20대 남성 김모씨가 같은 방법으로 하은이를 만나 전북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갖고 사라졌다.

버려진 아이는 이때부터 닳새 동안 남성 7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

결국 하은이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두 눈이 풀린 상태로 발견됐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난데없이 사투리를 쓰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했고, 심한 경우 흥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는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심지어 50대 남성 직원에게 잇달아 성추행까지 당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하은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4개월 동안 입원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았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하은 어머니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이 어눌한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 채팅앱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다"며 "다들 어른인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애를 집으로 보내준 사람이 없었냐"고 성토했다.

◇ 법원 "자발적 매춘...치료비 받을 수 없다"

하은 모녀는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양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현석 부장판사)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선고된 형사소송 판결에서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하은이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씨가 하은이와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하은이를 유린한 양씨는 벌금 400만원, 김씨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 IQ 70 하은이, 의사결정 가능한가?...같은 법원 다른 판결

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에서는 이미 "하은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하은이 측이 김씨를 상대로 같은 요구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은이 IQ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두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서 하은이는 한달 사이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 것.

법원 관계자는 "하은이의 경우 장애 등급이 모호한 '경계성 지능' 수준이어서 검찰이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기소한 것 같다"며 "이런 경우 현행 아청법에서는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경우 아이를 승용차에 태워 직접 전주까지 이동시켰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도 하은이를 모텔로 데려간 7명의 남성을 성폭행이나 의제강간이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송치하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런 사례에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

최근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부모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일 뿐"이라며 "법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매수자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을 처벌하는 것으로만 사회적 성 풍속을 확립시키겠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장애인 기관 및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25.

우리 중의 한 사람 - ‘손톱만큼 자라는 사람들 - 지적장애인’

by 반창고

“똑똑똑”

지은(가명)이가 교실 문을 닫고 노크합니다.

언니와 함께 집에 간다고 나간 아이가 갑자기 왜 노크를 했던 걸까요?

“지은이는 내일 있을 일을 미리 연습해 본 거예요. 내일 부모님이 지은이를 데리러 오실 때 부모님이 노크하면 자기가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지은이를 처음 본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보이는 갑작스러운 행동도 김영임 선생님의 눈에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힌트입니다.

경기도 파주 문발초등학교에서는 지적장애인 친구들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선생님은 학습도움반에서 지은이와 같은 지적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특수 교육지도사입니다. 학습도움반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받기 어려운 국어나 수학과 같은 과목을 지적장애인 학생의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는 교실입니다.

간혹 벌이질 수 있는 일일 뿐

김영임 선생님이 지적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지낸 시간도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지적장애인 친구들을 도왔을 때는 ‘엄마’의 마음이 앞섰다고 합니다. 다 해주고 싶고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잘하든 못하든 아이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교실 안에서 비장애인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도움반 아이들이 먼저 노력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수진(가명)아 한번 해봐. 와! 애들아 수진이 잘했지?”

김영임 선생님의 칭찬에 도움반 학생들의 모습도 변했지만 곁에 있던 비장애인 학생들도 함께 변해갔습니다. 나와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김영임 선생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겠죠.

교육받을 권리보다 앞서는 행복의 권리

“저희 도움반 아이들은 유치원 6살 정도로 행동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이들

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유치원부터 함께 했던 아이들도 있으니 저에게는 자식 같죠. 종종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저의 집 두 딸은 남의 자식처럼, 우리 반 아이들은 제 자식처럼 키워야겠다고요.”

그리고 보니, 내 자녀를 남의 아이처럼 키우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여유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성숙하니까요.

지적장애인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증상에 따라 때로는 부모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지적장애인 아동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공부에 대한 부분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비장애인 아이들처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마음에 어떻게든 더 노력해보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님 중에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안 되는 부분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희진(가명)이가 시계 보기가 안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엄마가 편하게 마음을 가지니깐 희진이도 학교생활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교실 곳곳에 큰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희진이를 위해 놓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희진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김영임 선생님은 희진이가 시계 보기를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애쓰고 계셨습니다. 반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아이 중에는 학교생활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손톱만큼 자란다> 라는 책의 제목처럼 김영임 선생님도 함께 한 시간이 쌓인 후 도움반 친구들이 어느새 ‘손톱만큼’ 자라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한다고 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변화의 폭이 작을지라도 지적장애인 아이들에게 각 특성에 맞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지를 선생님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교육은 중요합니다.

교육보다 앞선 것은 아이가 즐겁게 학교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장애인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비장애인 아이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에 앞서,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권리가 있겠지요.

담담히 바라보는 마음

“학교에서 배웠던 특수 교육 교과서와는 다른 것 같아요.” 김영임 선생님과 짝을 이루어 도움반 친구들을 돕고 있는 이호인 선생님은 특수교사가 된 지 이제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말처럼 교과서에는 다 담길 수 없는 지적장애인 아이들의 모습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워요. 선생님의 모습을 봐

뒀다가 나도 나중에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지, 하고 기억해 주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 교실에 왔을 때는 지은이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아듣기 시작하니깐 대화도 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세상에는 책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이 쌓여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저를 수 있지 하고 담담히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일 듯합니다.

부록 26.

70대 중풍·치매환자

경향신문 김준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사는 중풍·치매 환자 이갑순씨(가명·72·여)의 사례는 자신과 가정이 국가 및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씨는 5년 전 이맘때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반신불수인 데다 심한 치매를 앓고 있다. 그의 병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심한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하다.

이씨의 며느리 김진숙씨(가명·41)는 5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커리어우먼’이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무역업에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초 회사를 급히 헐값에 팔아야 했다. 1988년 설립한 이후 12년 만이며 결혼 9년 만의 일이다.

회사를 포기한 이유는 중풍·치매를 앓는 이씨를 돌보기 위함이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 반드시 시어머니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며 사업 포기를 종용했다. 남편과 심하게 다툰 끝에 김씨는 결국 집안으로 들어와 지낼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변신’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서 대소변을 가릴 때, 식사할 때도 김씨의 도움이 없으면 시어머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들(12)이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지만 교육에 신경을 써줄 만한 여유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는 이씨의 남편(75)마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김씨는 도저히 혼자 집안의 우환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집안에 전문 간병인을 들이기로 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중풍·치매 환자를 돌봐온 한 여성 간병인(58)을 집안에 상주시켜 시어머니를 보살피게 하고 있다. 그래도 김씨는 너무 바쁘다. 시아버지의 노환과 아들 교육, 가사 등에 신경쓰는 것만 해도 힘겹다.

이들 가족은 웃을 일이 별로 없이 언제나 침울하다. 특히 며느리 김씨는 남편·아

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다. 가족 나들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이 가정이 간병인 급여와 병원 치료비, 신체 보조치료기, 약값으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월평균 3백만원이다. 의료보험 이외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은 전혀 없다.

김씨는 이혼을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하루라도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다. 김씨는 “나는 노예나 마찬가지”라며 “중풍·치매환자 돌보기는 한 가정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부록 27.

치매노인과 함께 사는 네덜란드 마을

중앙일보 김정근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먼저 소개할 사례는 이미 미국 CNN에서도 소개된 네덜란드의 호그백(Hogeweyk) 마을이다. 일종의 치매 노인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치매 노인도 자유롭게 생활하고 활동하며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2009년 간호사 이본반아메 룡겐(Yvonne van Amerongen)이 중앙정부와 지역기관의 협조로 네덜란드 베스프마을 북쪽 외곽에 마을을 조성했다.

'호그백 마을'은 슈퍼마켓, 커피숍, 미용실, 공원 등이 있는 1만5000㎡ 규모의 커다란 마을이다. 23가구, 152명의 중증 치매 환자와 250명의 스텝이 거주하고 있다.

호그백마을의 특징은 치매를 기존의 의료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라고 해서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다.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무료로 슈퍼마켓,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CCTV와 교육을 받은 전문 강사,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을 내 상주하며 환자들의 활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런 시도가 치매 노인들에게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연구결과 호그백 마을 거주 치매 노인들은 거주하기 전보다 약물 복용량이나 공격성은 감소한 반면 식사량은 늘었고, 상대적 수명 또한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호그백 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외곽 랑드 지역에 알츠하이머 마을을 만들고 있고,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치매노인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치매 노인도 일반인과 같이 삶의 재미를 느껴야 한다는 '인간중심' 관점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연에서 치유하는 네덜란드 '케어팜'

'케어팜(Care Farm, 치유 농장)'은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형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다.

농촌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중·고령층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어 최근

국내 귀농현상과 고령화현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케어팜을 처음 시작한 곳은 북유럽으로, 네덜란드는 1995년 50개에서 출발해 2015년 1100개로 확대했다. 이중 15%는 치매 노인을 위한 케어팜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케어팜은 민간농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치매 노인을 위해 기존 요양원을 대신한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드포트(De port) 케어팜을 소개한다. 드포트는 기존요양원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2005년에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를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치매 어르신들을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포트는 총 2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개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6~7명이 한 가구를 구성한다.

특히 활동이 가능한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드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장에 나가 걷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농장활동에 참여해 자연과 최대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육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향상시킨다. 또 동물·자연과의 교감, 참여자간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음식섭취량도 증가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층이 고령층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자폐아나 마약·알콜·게임 중독자로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다. 농장의 소득원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의 증가로 많은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사업자들이 시니어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와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순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에이징 2.0시대를 바라보는 선진국들은 동일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쩌면 고령화 속도는 우리사회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 전통적 고령화관점에서 벗어날 때 혁신적인 한국형 에이징 2.0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부록 28.

"죽으면 내 시신 좀 가져가 주오"

머니투데이 이재운 기자

"죽고 나서도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실 걸 뻔히 아니까 대학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기증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죽어서도 갈 곳이 없으니 좀 받아달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신모씨)

'시신기증'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망 후 자신의 시신을 의학발전과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기증하는 것이죠. 인체를 알아야 하는 의대생과 의료연구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숨을 거뒀다지만 자신의 신체를 남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내줄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남을 위해 내놓는 숭고한 일입니다.

시신기증을 하면 목적에 따라 해부가 진행되고 연구가 끝나는 1~3년간 장례도 치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 한 올도 소중히 여기라고 교육받은 유교적 사상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절대 쉽게 결정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고인의 뜻을 받들어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에선 최소한의 예의로 화장 등 장례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시신기증자가 가장 많은 한 대학에선 이분들만을 위한 납골당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화장 후 유골을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런 숭고한 뜻이 담긴 시신기증이 한순간 비극으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좋은 뜻에서 가족들과 상의를 통해 연락이 오지만 죽음을 앞둔 고령의 노인이 스스로 시신기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식들이 장례도 치르지 않을 것 같으니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식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겠다고 직접 전화기를 들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자식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사회 안타까운 민낯이 나타나는 단면입니다.

시신기증을 받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독거노인들이 직접 시신기증을 받는 곳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실제 기증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직접 시신기증을 신청하는 노인들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연락을 취해오는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의 시신기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이후고 유족들이 시신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연구를 마치고 장례절차를 밟아 유골을 돌려주기 위해 유족에게 연락을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내놓는 시신기증이 한순간 불효자식의 고려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유골이 되어서까지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얘기만 들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자식들만 손가락질 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장례비용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자식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시신기증에 대한 취재를 시작할 때는 시신 기증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장례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기증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취재를 할 수록 우리사회의 그늘진 모습이 드러나 안타까웠습니다. 시신기증이 갖는 숭고한 의미가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밀려 퇴색돼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록 29.

“하루하루 사는 게 두렵다”

프레스이안 전홍기혜 기자

“나 죽는 거 안 두려워, 사는 게 무섭지. 어디 가서 하루 한뼉잠 자면 인생 끝나는 거야.”

세 아들에게 버림받고 노숙자로 떠돌다 병원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김영철(73.가명)씨. 할머니가 죽은 후 불과 1년 사이에 김씨는 자식들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이 됐다.

오른쪽 다리가 썩어 들어가 절단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에게 김씨는 한사코 수술을 거부한다. 그나마 불구가 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용변을 볼지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의사 선생님, 제발 퇴원시켜주세요. 간병해줄 사람도 없는 데 수술을 하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의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아드님이 셋이나 되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라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

절망감에 자살 꿈꿔

함께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눈을 감은 것은 지난해 추석. 김씨 할아버지는 서울 흑석동 집과 쌀가게를 처분한 돈 7억여 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큰 아들(45)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큰 아들과의 짧은 동거는 2개월 만에 끝났다.

김씨가 물려준 재산을 아들이 주식투자로 모두 날리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큰며느리가 “도저히 시아버지를 못 모시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큰 아들. 김씨에게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그도 한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추운 겨울 항공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둘째 아들(43)네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세 며느리 중에서 가장 후덕한 둘째 며느리였지만 당뇨병을 오랫동안 앓아온 김씨를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형도 안 모시는데 내가 왜 모셔야 하나” 는 불만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다. 둘째 아들과의 동거 역시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

김씨는 차마 막내 아들(41)에게 찾아갈 수 없었다. 막노동을 하는 막내는 아들 셋 중 가장 공부도 못 시켰고 형들에 비해 사는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막내 며느리는 지난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절대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겠다” 고 공언하기도 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지난 7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에 몰래 집을 나와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

김씨의 잠자리는 서울시 노량진동 한강대교 밑이었다. 끼니는 빵과 컵라면으로 때우고 먹을 물은 공원, 동사무소 정수기 등에서 떠다 먹었다.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도 문제였지만 김씨를 제일 괴롭힌 건 동숙하던 젊은 노숙자들의 폭력. 술에 취한 젊은 노숙자들이 술을 사달라며 김씨를 구타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날이면 김씨는 자식들을 원망하며 울기도 했다고 한다.

김씨의 노숙자 생활은 현장에 조사 나온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한 달만에 끝났다.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사회복지사는 그를 서울 용산의 S 노숙자 쉼터로 안내했다.

쉼터에서 지내게 된 김씨는 여기서 인생을 마치리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가출할 때 들고 나왔던 2백20만원이 든 통장도 쉼터 원장에게 맡겼으며, 평생 교회 문턱에도 가본 적 없던 그가 기독교도가 됐다. 김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 그동안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생 마음 편히 살다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나 노숙자 쉼터에서의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노숙자들의 거친 생활이 그대로 배어 있었던 것. 젊은 사람들의 폭력은 그 곳에서도 계속 됐다. 게다가 세 아들들은 아버지가 쉼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오지 않았다.

소외와 가난이 짓밟는 노인들

그러던 김씨는 8월 말경 오른쪽 발가락을 못에 찔려 다쳤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쉼터 직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상처는 점점 깊어갔고 당뇨병은 상처를 더욱 악화시켰다.

김씨는 상처가 난 한 달만에 병원에 입원해 상처가 난 발가락을 절단했지만 살은

계속 썩어 들어갔다.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때문에 김씨는 무릎 바로 밑까지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한 달간의 병원 생활은 그나마 남아 있던 삶에 대한 미련마저 앗아가 버렸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자식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노숙자 쉼터에서도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씨는 혼자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식사와 용변을 처리해야만 했다.

오늘도 김씨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퇴원하면 자살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병실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일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원에 버려진 노인들. 늙고 병든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알게된 김영철씨. 그가 겪은 지난 일 년간의 일들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험하는 ‘소외’와 ‘가난’이었다. 또 당연히 자녀들이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노인 세대들과 이를 더 이상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간의 인식 차이도 엿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은 약 3백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3%. 2022년쯤이면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피부양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뜻이고, 개인적으로는 돈 버는 기간에 비해 돈을 쓰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핵가족화, 고령화로 노인복지 문제는 일찍이 예고돼 왔으며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노인복지 수준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쫓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상태로는 병원에서 만난 김씨 할아버지의 모습이 훗날 우리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게임 중독 문제, 본질은 게임이 아니다”

BLOTER 이기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생산적인 논의 과정 없이 1년 뒤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기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거라는 게 비판의 요지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게임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에서는 게임 중독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연달아 나왔다. 25일에는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뤘고, 26일에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게임 중독 문제를 이야기했다. 두 강연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게임 중독 문제의 본질은 게임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게임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90년대의 관점에 머물러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90년대 인터넷 중독 논란의 되풀이

WHO는 오는 5월 예정된 국제질병분류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할 예정이었다. 게임 장애의 시초는 90년대 인터넷 중독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6년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킴벌리 영 박사는 인터넷 채팅에 빠진 주부의 사례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알콜 중독 진단 기준에 인터넷을 대입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얼마나 인터넷을 오래 해야 중독인지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또 인터넷으로 채팅, 쇼핑,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질적인 행동 등을 뭉뚱그려 인터넷 중독으로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인터넷 중독은 현재 정신과 진단체계 내의 정식 장애로 인정받지 못했다.

게임 중독 논란은 인터넷 중독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진단 기준과 진단 역치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APA)가 발간하는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판 ‘DSM-5’는 인터넷 게임 장애를 섹션3에 추가했지만 실제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기까진 더 많은 연구 및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덕현 교수는 DSM-5에 인터넷 게임 장애가 정식 질환에 오르지 못한 이유로 ▲진행된 연구들의 단점이 많음 ▲인터넷 자체가 문제인지 인터넷을 통한 행동과

경험이 문제인지 불명확 ▲종적 연구가 아닌 횡적 연구만 존재 ▲우울증, 불안장애 등 공존 질환과 높은 관련성 등을 꼽았다.

WHO의 ICD-11 개정안 초안은 게임 장애에 물질 중독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중독의 핵심 증상인 ‘금단 현상’과 ‘내성’을 진단 기준에서 제외했다. 장애로 진단하기에 불리한 기준을 제거했다는 얘기다. 한덕현 교수는 “WHO의 진단 기준에서 벗어난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WHO의 게임 장애 진단은)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며 게임 자체의 문제인지 게임을 하는 이용자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 됐다”라고 말했다.

게임 말고 즐길 게 없는 사회가 문제

게임 말고 즐길 게 없는 사회가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 중독은 결국 게임이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소장은 게임 중독 문제를 쥐 공원 실험에 빗대어 설명했다. 쥐 공원은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가 중독의 원인을 짚기 위해 행한 실험이다. 넓고 편안한 환경의 쥐 공원에 놓인 쥐와 비좁은 실험실에 격리된 쥐 두 그룹으로 나눠 모르핀을 탄 물과 일반 물을 함께 제공해 섭취량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실험 결과 쥐 공원의 쥐들은 일반 물을 더 선호했으며, 모르핀에 중독된 쥐들도 모르핀이 든 물을 적게 마시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환경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쥐 공원 실험은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며 “게임 중독을 병리 현상으로 접근해, 게임 장애로 진단된 사람을 좁은 공간에 놓고 환자로 관리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싸고 편리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일이 유용성보다 유해성이 더 크며, 진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장애 보유자를 양산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거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게임 개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임 중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구도에서 정치가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 중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논리적 합당성과 별개로 갈등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이 소장은 “게임 개발사가 스스로 미래 지향적인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고 게임이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부록 31.

"그 치명적 유혹에 넘어가서"

프레스리안 안종주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인간에게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골초, 술 중독자,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등의 행태를 보면 틀린 말이다. 이들의 지독한 탐닉 행동을 보면 인간에게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최근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는 이 표현보다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는 말을 쓴다)들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자세하게 들을 기회가 많았다.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글을 건전 음주 전문 잡지에 실기 위해 몇 년 동안 그들을 인터뷰 해왔다. 이 인터뷰를 통해 상상하기도 어려운 알코올 중독의 실상을 알았다. 이 가운데 두 사례를 소개한다.

A씨는 50대 남성이다. 술을 잘 마시는 집안 내력을 지녔다. 그의 주량은 소주로 5병 정도.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할라치면 미리 술을 마시고 간다. 맨 정신에 가면 그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였다. 소주 2병을 마시면 그는 멍뚱멍뚱했다. 친구들은 얼큰하게 취해버린다. 그래서 그는 모임 한두 시간 전에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2병을 사서 들이키고 난 뒤에야 모임에 간다. 모임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더 마시면 서로 분위기가 맞았다.

그는 1주일 내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주 네다섯 병을 마셨다.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고 온전한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희망 없는 삶을 이어오다 어느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아 겨우 알코올 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나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꾸려가고 있다.

B씨는 60대 남성이다. 그는 집안의 장손이었다. 10대 때부터 술에 절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20대 젊은 나이에 이미 환각, 환청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다. 집안에서 그를 알코올 치료 병원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 병원을 나와서 다시 술에 탐닉했다. 집안 식구들은 그를 기도원에도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한때 고기 집을 운영해 돈을 벌기도 했으나 이때에도 손님들과 늘 대작을 하며 술을 즐겼다. 50대가 되어서는 온 몸에 이상이 생겼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의료

진의 권유로 알코올 치료 병원에 입원해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술과의 접촉 자체를 원천 차단해 금주에 성공했다. 지금은 자그마한 커피숍을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난 동료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개 10대 때부터 술과 빈번하게 접촉했다. 그리고 몇 잔에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체질이 아니라 술이면 마다지 않는 두주불사형이 많았다. 대체로 술에 강한 집안 내력을 지녔다.

술이 센 것은 결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사실이 이들의 사례로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꾸릴 수 없거나 꾸리더라도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엄청 피해를 끼친다. 사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 마침내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다.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정신질환으로까지 진전된다.

사람들은 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몸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여긴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체가 몸이 받쳐주기 때문이라고도 자위한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로까지 연결돼 있는 것이 알코올 중독의 세계이다.

알코올 중독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개인적 위험인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다. 알코올 중독은 중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친구,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이들의 입원 치료와 조기 사망 등은 크나큰 사회적 손실이다. 자신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알코올 중독증(의존증)은 일반적으로 술에 의존증이 생겨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알코올 의존증은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취급된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이 술을 끊으면 오랜 흡연자가 금연할 때 불안, 초조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못 참는 것과 같은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겪듯이 몹시 술을 마시고 싶어 하고 손이 떨리며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금단 현상이 생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욱 많다. 흔히들 알코올 남용이라고 부르는 알코올 의존 전 단계는 술 때문에 툭 하면 밤늦게 또는 새벽에 귀가하고 다음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과음으로 몸

이 못 건디는데도 그 다음 날 다시 술을 계속 마시는 경우이다. 일주일에 4~5일 이상 한두 잔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마셔대는 사람은 알코올 남용일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마시는 형이다. 다른 하나는 한번 마셨다 하면 며칠씩 밤낮 가리지 않고 폭음하는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술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다닌다면 알코올 의존증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 혼자서 술을 즐겨 마시거나 주변 사람들한테서 주사가 있다고 지적을 받거나 한 번 마셨다 하면 만취할 때까지 마신다면 이 또한 알코올 의존증 초기를 의심해야 한다.

초기에서 중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는 알코올성 단기 기억상실(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난다. 일시적 건망증이 6개월에 2회 이상 나타난다면 이미 알코올 의존증이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필름이 끊기는 '베르니케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다. 술을 한 번 마시면 연속 며칠을 마시고, 술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잠이 오지 않으며, 금주를 결심했다가도 번번이 실패하는가 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술 문제로 퇴직과 이혼 압력을 받는다면 알코올 의존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찾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음주 조절 능력을 상실한 이런 사람 역시 알코올 의존증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 있다. 실제로 많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고, 잠이 깨자마자 술을 찾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입원 치료 후에 신체적 기능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시 음주를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술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절대로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술을 절제해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조절하는 뇌의 조절판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코올 의존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자신은 아무런 술 문제가 없다고 현실을 부정한다. 자신은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으며 단지 끊을 필요성을 못 느낄 뿐이라고 말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작다. 이들은 술 마실 구실을 찾기 위해 거짓말을 자꾸 한다. 나중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성격이 변하기도 한다. 성격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열등감이 많아지며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알코올 의존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잘 걸리는

부류가 있다. 부모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있다면 일단 조심하는 게 좋다. 수동적이고 내성적이며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을 잘 안하는, 열등감이 많은 성격에 흔히 나타난다.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과 같은 신경성 장애가 있을 때 잘 발생한다. 어려서부터 술에 대해 관대하거나 잘못된 일을 야단치지 않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났을 경우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나타나기 쉽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다. 특히 자살률이 매우 높다.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려면 금주해야 한다. 금주 후 약 1주일간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3~4일간 손과 발이 떨리고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한다. 금주는 가장 간단한 치료법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아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술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여전히 술에 관대한 문화에 젖어 있어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해서도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 애주가 정도로 치부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단주하기가 쉽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미국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연간 1167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알코올 중독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증으로 인한 손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알코올 의존증은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는 절망감과 자신이 살피지 못한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심지어는 시댁에서 아들이 술 먹는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우기도 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자녀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쳐 평소에 공포감, 증오심, 죄책감, 외로움이 가득 차있고 성격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다. 술 취한 상태에서 부인이나 자녀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의 심신 건강은 최악의 상태가 된다. 이를 견디다 못해 아내와 자녀들은 가출하거나 이혼을 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잘못으로 생기는 병이 결코 아니다. 이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가족이 치료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술이 깨고 난 뒤 후회하는 알코올 중독자의 행동에 자신의 감정이 흔들린다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친지나 이웃들에게 이를 숨기려 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술에 중독된 환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록 32.

내 마음의 상처는 몇 근이나 될까?

중앙일보 종교담당차장 백성호 기자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소동파(1037~1101)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히지요. 그만큼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당시 송나라와 당나라의 시는 매우 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동파의 시는 철학적이었습니다. 그가 삶과 세상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남달리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실제 소동파는 눈이 깊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의 힘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다. “눈이 열렸다”고 소문이 자자한 스님도 막상 소동파가 만나보면 별 게 아니었습니다. 몇 마디만 주고 받아도 소동파는 스님의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소동파는 쥐뿔도 모르면서 ‘대사(大師)’라는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북송에는 승호(承皓, 1011~1091) 스님이란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연배는 소동파보다 26살 더 많았습니다. 승호 스님이 입적할 때 일화입니다. 승호 스님은 81살이 되자 노환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스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승호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내 나이 81살이다. 이제 늙어 죽어 시신을 메고 나간다. 너희는 1년 360일 모두 (공부에) 힘을 쏟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나의 시신을 메고 나간다”고 말할 만큼 여여(如如)한 분이었지요. 그만큼 내공이 깊었습니다.

승호 스님이 주석하는 곳으로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닌 소동파였습니다. 둘은 초면이었지요. 승호 스님이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대의 존함은 무엇인가?”

소동파는 승호 스님의 속살림을 떠 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칭(秤)’가 입니다.”

소동파가 쓴 ‘칭’이라는 글자는 ‘저울 칭’ 자입니다. 중국에 정말 ‘칭’이

라는 성씨가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중국에는 칭씨가 없습니다. 그럼 소동파는 왜 ‘나는 칭가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맞습니다. 소동파는 승호 스님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당신이 대단한 고승이라 하는데, 내가 당신의 무게를 달아보려고 왔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기고만장하죠. 그래도 소동파의 그런 기개가 선(禪)수행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일 수도 있겠지요. 소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내로라하는 도인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소동파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승호 스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할’ 소리에 소동파는 뒤로 벌러덩 나가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소동파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승호 스님이 소동파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되는가?”

승호 스님이 던진 마지막 물음에 소동파는 아무런 답도 못했습니다. 눈만 깜빡하며 승호 스님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동파가 들고 있던 저울로는 승호 스님이 내지른 소리의 무게를 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문답 일화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치를 찾아내 체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선문답 일화를 읽고서 자신을 향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승호 스님은 왜 ‘하~알!’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 다들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왜 그렇게 고함을 질렀을까요? 이렇게 골똥히 궁리를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답이 올라옵니다. 고함을 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동파가 들고 있던 저울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동파의 저울은 ‘색(色)’ 을 다는 저울입니다. 색(色)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동파가 쥐고 있던 색(色)은 무엇일까요? 지식과 학식입니다. 그걸로 상대방의 무게를 달았습니다. 엄청

나게 많은 책을 읽고,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소동파는 “나의 저울로 달지 못할 대상은 없다” 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승호 스님은 소동파의 저울로 달 수 없는 걸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공(空)’ 입니다. 무거운 색과 가벼운 색을 따져가며 “나의 상대는 없다” 고 자만하던 소동파의 저울에 느닷없이 ‘공(空)’ 이 얹혔습니다. 소리의 속성이 ‘공(空)’ 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동파가 뒤로 나자빠진 겁니다. 갑자기 지른 소리에 놀라서 나가떨어진 게 아닙니다. 소동파는 지금껏 ‘눈에 보이는 것’ 만 보고 살아왔는데, 승호 스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을 내밀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닮았을까요. 소동파일까요, 아니면 승호 스님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동파와 똑 닮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쫓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색(色)’ 만 보고, ‘색(色)’ 만 쫓으며, ‘색(色)’ 만 저울질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동파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이 똑같습니다.

승호 스님은 그런 우리의 안목을 향해 망치질을 합니다. 이 선문답 일화를 통해 두들깁니다. 그걸 깨트리라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색(色)’ 만 붙들고 있는 삶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가령 사람들은 10년 전의 상처, 20년 혹은 30년 전의 상처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그걸 떠올릴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바위 덩어리 같은 상처가 지금도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색(色)’ 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의 저울에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고통이 덩달아 올라옵니다.

승호 스님은 상처의 덩어리, 그 정체가 ‘공(空)’ 이라고 일깨워 줍니다. ‘할!’ 하고 내지른 소리처럼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때 가졌던 감정이나 화도 이미 지나갔다. 이미 ‘공(空)’ 이 돼버린 사건을 자꾸만 ‘색(色)’ 으로 바꾸어서 되살려 내는 건 우리의 착각 때문” 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치에 대한 착각입니다.

승호 스님의 ‘할!’ 소리에 무릎을 꿇은 소동파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주위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서 있고, 그 위에서 산새들이 울어댔겠지요. 그 아래 난 오솔길을 소동파는 걸었습니다. 터벅터벅 내려가던 하산길에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저울에 올렸던 그 모든 색(色)의 정체가 뭘까?” 그렇게 공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비어 있구나.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채로 작용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구나.” 소동파는 비로소 그걸 깨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동파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산색은 그대로가 법신(法身)이다.”

산색(山色)이 뭘까요? 봄에 피는 꽃, 나무 위에 앉은 새들, 그들이 지저귀는 소리, 졸졸졸 흘러가는 냇물. 그 모두가 산색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입니다. 봄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질까요. 꽃이 진 자리에 맺히는 열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는 이 세상은 색신(色身)일까요, 아니면 법신(法身)일까요. 다시 말해 색(色)일까요, 아니면 공(空)일까요.

소동파는 이제 여기에 답을 합니다. “산색이 그대로 법신이다.” 즉 “색(色)이 곧 공(空)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집으면 “공(空)이 곧 색(色)이다” 가 됩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고, 뜻을 깨치면 저마다 안고 있는 상처가 소멸됩니다. 부서지지 않는 바위 덩어리인 줄만 알았던 나의 상처가 실은 무게조차 달 수 없는 ‘공기 풍선’임을 알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공(空)을 달 수 있는 저울 하나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록 33.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속 상처가 깊은 이유

시사저널 전우영 |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010년 12월22일 새벽 5시쯤, 주택가 골목에서 등산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어떤 집 앞으로 다가간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유유히 사라진다. 놀랍게도 이 남자가 대문 앞에 놓고 간 것은 사람의 배설물이었다.

주택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이 남자는 25세의 장 아무개씨였다. 그리고 그가 인분을 놓고 갔던 집은 장씨의 초등학교 여동창생인 김 아무개씨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장씨의 주장에 따르면, 7년 전에 시내에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김씨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 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장씨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김씨를 위협했다. 새벽에 김씨의 집 거실 창문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고, 붉은 글씨로 ‘SEX’ 라는 단어를 집 담벼락에 적어놓았다. 60여 차례에 걸쳐 새벽 3~5시쯤 공중전화로 김씨의 휴대전화에 전화한 뒤 아무 말 없이 수화기만 들고 있기도 하고, 대문 앞의 하수구 뚜껑을 열어 사람이 빠질 수 있게 만들어놓은 적도 있다. 집 대문과 직장 출입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로 밖에서 잠가놓는 방식으로 김씨와 가족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자신들에게 하는지 몰랐던 김씨와 가족들은 모자 쓴 사람만 보아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25일 장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짓을 저지른 장씨가 어떤 정신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아무런 정신적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씨와 김씨의 기억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은 CCTV에 나오는 장씨를 처음 보았을 때 누구인지도 잘 몰랐었다고 한다. 사건이 진전되면서, 확인 과정을 통해 장씨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더구나 김씨에 따르면, 자신이 장씨에게 욕을 했던 적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상대방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7년이 지나서까지 화가 풀리지 않아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

몸에 난 상처보다는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오래 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아물고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치유된다. 하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몸에 난 상처보다 잘 아물지 않고 더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까?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그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상처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잘 소독하고, 밴드나 거즈로 안전하게 감싸기도 한다. 잘못해서 상처를 건드렸다가는 상처가 덧나게 되고, 상처가 낫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와 다르지 않다. 상처를 다시 건드려 덧나게 만들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몸에 난 상처와는 달리 마음에 난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는 기억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갑자기 의식 속으로 뛰쳐나온다.

자신이 상처 입었던 장면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상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건과 사람을 단번에 잊을 수는 없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되새김질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되새김질은 이미 난 상처 위에 다시 한번 생채기를 내는 결과를 낳게 한다. 따라서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가는 이유는 몸의 상처는 아물 때까지 다시 건드리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수도 없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상처를 덧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몸의 상처도 다 아물기 전에 다시 건드리면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상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았던 것들도 이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된다.

자기 스스로 상처내고 덧나게 하지 말아야

내 몸의 상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내 잘못으로 생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상처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방법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딴 곳에 신경 쓰다가 유리가 없는 줄 알고 뛰어가서 유리문에 정면으로 박치기를 한 다음에, 왜 유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아서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었느냐고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상처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고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한다. 자신은 10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초등학교 동창생을 알아보고 반갑다는 의미로 씩스러운 미소를 건넸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대방은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비난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미소를 건넨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신은 아는 척을 했는데 상대방은 모른 척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무반응을 자신을 모욕한 행동이라고 규정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도,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만든 상처를 스스로 덧내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상대방이 초등학교 때 자신을 모욕했던 일들까지 끙아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모욕 사건 목록에서 1, 2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목록의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자기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모욕 사건의 스토리는 더 그럴듯하게 각색되고 점점 더 블록버스터급으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동시에 이러한 생각에 매몰된 채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나중에는 상처가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상대방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록 34.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5년 전 부천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문제의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의 집>

지상에 방 한 칸 가질 수 없어서
마음 한 자리
집을 짓는다.

정갈한 거실
벽

밀레의 '만종'
걸어 놓는다.

저무는 황혼
노동의 들녘에
깡이를 손에 쥐고
고개를 숙여

저 경이로운 감사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은

가족의 힘
돌아가 쉴 수 있는
집의 힘

그래서 나는
남루한 영혼에
천상의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된다.

인생의 상처가 냄새처럼 맡아지는 사내들과 좁은 방 안에 어깨를 부딪히며 잠들고, 일어나 청소하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만드는 교도소 무용담도 듣고, 청계천에서 세탁소를 했다던 김선생의 맞지 않던 틀니도 걱정하고, 식탁을 펴고 국과 밥을 끓여 주던 맑은 눈의 경상도 사내(이름이 기억나지 않음)와 형 아우하며 지내던 시절에 적은 시입니다.

아, 그런 집에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 꿈은 하늘에나 가야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저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영화사 조감독, 잡지사 편집기자, 연극 연출, 이벤트 연출 등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치기 어린 시절이었지요. 그 후, 엑스포 도우미 내레이션 교육의 시작으로 여러 기업체의 고객만족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셨는지, 강의 중에 조는 사람 없이 재미있어 한다고 대기업에서도 교육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던 마흔 넷, 지금부터 바야흐로 십삼 년 전이군요. 흔히 말하는 유산싸움에 휘말려 쉼터로 피해 다니고 결국, 부친이 돌아가시자 끝이 나더군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고시원 생활. 좁은 방 안에 누워, 시비하는 문밖의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불안해하며 잠들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의 알코올. 술이 개입된 십여 년의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갈망, 음주, 해방 및 일탈감, 탈진, 분노, 자기연민, 엄습하는 불안. 조금 일하다가 며칠씩 술을 마셔 무단결근으로 잘리고, 술취한 언행과 치행으로 피해를 본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을 받아야 하는 순간들.

그렇게 고시원과 쉼터를 전전하다가 고마운 분들의 손길로 작년 10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5년 전의 그 시 속에서 꿈꾸던 방과 똑같은 방. 정갈한 하얀 벽,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옷장 등이 모두 갖추어진, 벽 너머 코 고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모두 같은 시간에 행동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행복하우스. 기적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여 년의 파행된 습관이 비수처럼 나타나 넘어지기도 하고, 그

렇게 결심과 행동이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곳 지원주택에 와서야 알코올중독 치료를 시작했고, 사력을 다한 복약이 왜 소중한지를 몸서리치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의 기회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부축해주실 때 건강한 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바로 생활하지 않으면 정말 지원주택이 필요한 어떤 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니, 열심히 일하고 늘 돌아와 쉬고 싶은 안온한 이곳에 있을 때 힘을 다해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집에 들어와 소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십시오.

비록 청소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배우 김완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연극과 지원주택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2017 길리언 토크콘서트'의 연출을 맡은 김완규 님

용서의 기술

딕 티비츠 지음, [한겨레 신문] 김일주 기자

용서는 당신을 다시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해준다. 용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현실을 왜곡하는 관점을 줄여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해준다. 용서는 틀을 다시 짜서 당신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을 치료한다.

‘살아가기 위해 용서하라(Forgive to live)’라는 책의 원제는 지은이의 경험에서 비롯했다.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사로 30년 넘게 행동건강학을 연구해 온 지은이는 10년 남짓 깊이 신뢰하며 다녔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렸던 경험이 있다. 상심이 컸지만 다시 새 직장을 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산다는 것이 전혀 가치 없다고 느꼈고, 자신이 화났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고, 인생을 향한 에너지도 흥미도 잃고 대부분의 시간을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 용서를 위한 여러 단계와 절차를 밟고난 뒤 건강과 열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용서의 기술>은 지은이 딕 티비츠가 발견하고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지은이는 우선 ‘용서’라는 말에 따라붙는 잘못된 통념을 잡아낸다. 용서는 사건을 잊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다. 용서는 흔히 생각하듯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옳은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는 것이다. 용서는 관용과 같은 말이 아니다. 상대방을 용서한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에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서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고 앙갚음하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란 “현재의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은이는 먼저, 삶이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한다. “당신도 나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다. 그 사실은 부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삶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또한 ‘내 삶이 불행한 것은 네 탓’ 이 결코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어 결백하다고 느끼게 하지만,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닌 남이 된다. 남은 건 무기력감뿐이다.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당신이 넘겨준 당신 삶의 통제권에서 당신을 해방시킨다.”** 용서는 자기 삶과 행복을 자신이 책임지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용서에 이르는 길은 사실 소박하다. “타인을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라”, “어떤 불쾌한 상황을 겪더라도 상대의 의도와 당신에게 끼친 영향을 구분하라”, “다른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를 낮춰라”, “겸손과 공감의 기술을 터득하라” 등. 하지만 결과는 결코 소박하지 않다. 용서는 분노, 원망, 자기희생의 고리를 끊고 삶에 희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 나를 위한 선택, 용서 -

프레드 러스킨의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이 있는데여기서도 용서의 의미를 규명했습니다. 먼저 용서는 선택이라는 것이고 용서란 평화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믿게 되거나 자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씩씩한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통하여 평화의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용서와 건강과의 관계는 용서는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좋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용서를 경험하면 겁내거나 화내는 일이 적어지고 희망적이 되었으며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